

碩士學位論文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특성 분석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李英姬

2009年 2月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특성 분석

指導教授 李 起 浩

李 英 姬

이 論文을 衣類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李英姬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목차

국문 초록

표 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II. 누보 팝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1. 누보 팝의 등장배경 및 사조	6
2.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의 비교	13
3.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성 분석.....	25
III.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코드화	36
1. 누보 팝아트와 패션과의 관계	36
2.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성 코드화.....	40
IV.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분석.....	48
1.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48
2.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55
3.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58
4. 소비문화와 경제	63
V. 결론	72
참고문헌	77
ABSTRACT	81

국문 초록

팝아트(Pop Art)는 예술의 한 사조이면서 사회문화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한 팝아트는 곧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전통성이 강한 유럽의 팝아트는 미국식 팝아트와 신사실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띠었다. 또한 1970~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구상회화(figurative painting)로의 복귀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유럽의 팝아트는 신구상회화(Nouvelles Figuration)의 일종인 자유구상주의(Figuration Libre)의 영향과 오랜 기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도 팝아트가 지속적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감각과 관점에서 팝아트를 재해석한 누보 팝아트(Les Nouveaux Pop Art)가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도 팝아트가 지속적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감각과 관점에서 팝아트를 재해석한 누보 팝아트가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는 기성의 오브제들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누보 팝아트는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이거나보다는 서술적이라는 점, 일상의 소재나 작가의 경험을 상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통속적이고 풍자적이되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미국의 팝아트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누보팝아트는 미국식 팝아트와는 엄밀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보 팝적인 비판과 풍자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패션을 대부분 미국식 팝아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누보 팝에 관한 학문적 연구나 이론정립 등 개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팝아트와 구별되는 누보 팝아트의 특성을 살펴보고 패션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누보 팝아트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누보 팝아트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한 결과를 근거로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등장한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분석을 통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누보 팝이라는 장르를 소개함으로써 좀 더 대중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60년대 팝 패션처럼 패션분야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패션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병행하였다. 누보 팝아트 개념 정립을 위하여 팝아트를 비롯해 유럽문화와 예술을 다룬 국·내외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사진자료를 선별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팝아트와 비교·분석하여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 개념을 정립하였고, 누보 팝아트 작품들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여섯 가지 주제를 분석 및 해석을 한 후 코드화 하였다. 누보 팝 이미지의 코드를 근거로 2000년대 이후의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표현기법 및 외적형식, 그리고 내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 · 해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누보 팝아트가 미국식 팝아트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작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이를 근거로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현대 패션은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인 인간적 관점에서의 은근한 비판 및 은유를 통해 현대사회를 풍자적인 주제의식으로 고발된 결과물의 일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을 통해 사회적인 풍자 및 병폐 고발을 한 컬렉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서 규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성(性)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 권력의 과시성, 환경파괴의 경고성,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개념 및 이론적 체계 정립은 물론 미국적 팝아트 패션뿐만 아니라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새로운 조형적 표현기법 및 의미 제시, 창조적인 발상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줌으로써 미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Key Words: 팝아트, 누보 팝아트, 성의 해방성, 성의 해체성, 권력의 과시성, 환경 파괴의 경고성, 충동적 소비성, 자본주의 영리성

표목차

<표 1> 연구모형	5
<표 2> 누보 팝아트 등장 배경	12
<표 3> 1960년대 전후 팝아트 작품 분석	16
<표 4> 누보 팝아트 작품 분석	18
<표 5>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의 비교	24
<표 6>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징	33
<표 7> 누보 팝 이미지 개념	35
<표 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특성	69
<표 9>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의 예시	70

그림목차

<표 3-a> 크라잉 걸, http://blog.naver.com/yh020581/10029947428	16
<표 3-b> 캠벨 수프 깡통, http://blog.naver.com/yh020581/10029947758	16
<표 3-c> 위대한 아메리카 누드, http://blog.naver.com/yh020581/10035465916	16
<표 3-d> 빨래집게,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096459	16
<표 3-e> 침대,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096459	16
<표 3-f> 성조기, http://blog.naver.com/pieta999/100025583285	16
<표 4-a> ‘펠컨’, ‘곰’, http://www.somamuseum.org	18
<표 4-b> 부츠를 신은 큰 슈나이저와 작은 슈나이저,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913047	18
<표 4-c> 보그 암소, http://www.somamuseum.org	19
<표 4-d> 코카콜라 소녀, http://blog.naver.com/yh020581/10035318063	19
<표 4-e> 아비뇽의 처녀들, 갤러리 트리 전시회 도록	19
<표 4-f> 에니콜과 행복한 눈물, 갤러리 트리 전시회 도록	19
<표 4-g> 파도, http://blog.naver.com/yh020581/10035318606	19
<표 4-h> 100송이 꽃, http://www.somamuseum.org	20
<표 4-i> 신 스트레스 건망증, http://www.somamuseum.org	20
<표 4-j> 하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http://blog.naver.com/yh020581/10035302558	20
<표 4-k> 리얼타임 코코팝스,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913252	20

<그림 1> 1993 Gundmundur Erro 'Magic space' 갤러리 트리 전시회 도록.....	22
<그림 2> 2004 Combas Robert 'War' http://blog.naver.com/ymandara/110018437503	22
<그림 3> Johanne Corno 'Face #121' Opera Gallery Seoul 전시회 도록.....	22
<그림 4> 1966 Niki de saint phalle 'Hon' http://blog.naver.com/swingkitty/120033768109	22
<그림 5> 1966 Niki de saint phalle 'Nana' http://blog.naver.com/swingkitty/120033768109	22
<그림 6> 타헬레스 풍경사진, http://super.tacheles.de/cms	39
<그림 7> 타헬레스 풍경사진, http://super.tacheles.de/cms	39
<그림 8> 2008 S/S Louis vuitton 'Joke Bag', http://likenoone.egloos.com/1394825	39
<그림 9> 2008 S/S Louis vuitton, http://blog.daum.net/okeum/13757461	39
<그림10> 2002 Richard Prince 'Nurse of Greenmeadow', http://blog.naver.com/yabb666/150031575118	39
<그림11> 2002 Richard Prince 'Washington Nurse', http://blog.daum.net/okeum/13757461	39
<그림12> 성의 해방성(Balenciaga, 08 S/S), http://blog.naver.com/punkromance/40042868625	52
<그림13> 성의 해방성(Balenciaga, 08 S/S), http://blog.naver.com/punkromance/40042868625	52
<그림14> 일본 만화 '마법소녀 리나'의 여주인공 이미지, http://blog.naver.com/lovelybb13/130033937263	52
<그림15> 일본 만화 '마법전사 스위트 나이트'의 여주인공 이미지, http://blog.naver.com/funnyalmond/90028605303	52
<그림16> 성의 해방성(Christian Dior, 01 S/S), http://blog.naver.com/dhscjs89/10029782111	53
<그림17> 성의 해방성(Christian Dior, 01 S/S), http://blog.naver.com/dhscjs89/10029782111	53
<그림18> 성의 해방성 (Arkadius, 02 S/S), http://www.arkadius.com	53
<그림19> 성의 해방성(TXELL MIRAS 06 F/W), http://www.txellmiras.eu	53
<그림20> 성의 해방성(TXELL MIRAS 06 F/W), http://www.txellmiras.eu	53

<그림21> 성의 해방성(TXELL MIRAS 06 F/W), http://www.txellmiras.eu	53
<그림22> 성의 해체성(LE TARTARUGHE, 05 F/W), http://www.susannalisoperletartarughe.it	54
<그림23> 성의 해체성(LE TARTARUGHE, 05 F/W), http://www.susannalisoperletartarughe.it	54
<그림24> 성의 해체성(Comme des Garcons, 06 F/W), http://blog.naver.com/rain00nana/40028143363	54
<그림25> 성의 해체성(Comme des Garcons, 06 F/W), http://blog.naver.com/rain00nana/40028143363	54
<그림26> 성의 해체성(Comme des Garcons, 06 F/W), http://blog.naver.com/rain00nana/40028143363	54
<그림27> 성의 해체성(Comme des Garcons, 06 F/W), http://blog.naver.com/rain00nana/40028143363	54
<그림28>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29>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30>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31>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32>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33> 권력의 과시성(John Galliano 08 S/S), http://men.style.com/fashion/collections/S2008MEN	57
<그림34>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0
<그림35>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0
<그림36>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0
<그림37> 2008 F/W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0
<그림38>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0

<그림39> 환경의 경고성(Gianni Versace, 08 F/W),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1
<그림40> 환경의 경고성(Gianni Versace, 08 F/W),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1
<그림41> 환경의 경고성(Gianni Versace, 08 F/W),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1
<그림42> 환경의 경고성(Gianni Versace, 08 F/W), http://blog.naver.com/rattee72/80052419286	61
<그림43> 환경의 경고성(JEREMY SCOTT, 08 S/S), HAPPER'S BAZAAR KOREA COLLECTION BOOK 2008 S/S	62
<그림44> 환경의 경고성(JEREMY SCOTT, 08 S/S), HAPPER'S BAZAAR KOREA COLLECTION BOOK 2008 S/S	62
<그림45> 환경의 경고성(JEREMY SCOTT, 08 S/S), HAPPER'S BAZAAR KOREA COLLECTION BOOK 2008 S/S	62
<그림46> 환경의 경고성(JEREMY SCOTT, 08 S/S), HAPPER'S BAZAAR KOREA COLLECTION BOOK 2008 S/S	62
<그림47> 환경의 경고성(Hussein Chalayan, 07 F/W) http://blog.naver.com/zeclipse/90014838102	62
<그림48> 충동적 소비성(Victor&Rolf, 08 F/W), code Fall 2008 pret-a-porter	65
<그림49> 충동적 소비성(Victor&Rolf, 08 F/W), code Fall 2008 pret-a-porter	65
<그림50> 충동적 소비성(Victor&Rolf, 08 F/W), code Fall 2008 pret-a-porter	65
<그림51> 충동적 소비성(Victor&Rolf, 08 F/W), code Fall 2008 pret-a-porter	65
<그림52> 충동적 소비성(Victor&Rolf, 08 F/W), code Fall 2008 pret-a-porter	65
<그림53> 충동적 소비성(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Collezioni pret-a-porter SS 2004	66
<그림54> 충동적 소비성(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Collezioni pret-a-porter SS 2004	66
<그림55> 자본주의 영리성(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Collezioni pret-a-porter SS 2004	6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술 사조 및 그 사조의 다양한 표현기법은 패션디자인의 영감의 근원을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예술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폴 푸아레(Paul Poiret)를 선두로 디자이너들은 팝아트나 옵아트,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사조에서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앤디워홀(Andy Warhol)과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등의 작가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디자인을 창작하는 등 복식을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패션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음은 이미 복식사에서 규명한 사항이다. 복식사가 콘티니(Contini)에 의하면, 복식양식은 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순수 예술과 유대관계가 있으며 이집트 시대나 크레타 문명 혹은 20세기 복식에 나타난 모티브가 그 시대의 회화, 조각, 기타 미술에 나타난 모티브와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화려펍(Farrelle-Back)과 페트치(Petsch)의 연구 결과에서도 샤넬(Chanel)과 비오네(Vionnet)의 작품세계의 색감과 화가인 피카소(Pablo Picasso)와 마티스(Henri Matisse)의 작품세계의 색감에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순수예술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 또한 패션 디자인의 진보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하였다(임은혁, 2004). 또한 혼(Horn)은 “패션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정신적으로 복고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기능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그리고 추상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팝아트나 옵아트의 경향도 그 시기의 복식에 타나나곤 하였다”(정승은, 김혜경, 2004)라고 하여, 예술과 현대 복식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팝아트 이전의 전통적 성향의 작가들은 작품을 지나치게 고전적으로 묘사하거나 작가 자신의 미적 세계에 몰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때때로 물의를 일으켰고 관중들의 조롱, 거부, 반감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예술은 작품자체만으로 존재하였을 뿐 대중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화가들은 많은 대중들이 예술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력 결핍으로, 틀에 박힌 예술과 새로운 예술 사이에 단절이 성립 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미 20년대에 선각자적인 사고를 가졌던 소니

아 들로네(Sonia Delaunay)가 “만일 회화를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건 여성들 자신이 입고 다니는 방법뿐이다”(이인성, 1997) 라고 제시한 것처럼, 의상이 예술을 대중과 결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예술과 대중의 괴리 사이에서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60년대 팝아트는 결국 들로네의 예술의 대중화에 대한 이론이 팝 아트 패션의 출현이라는 결실로 맺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팝아트는 예술의 한 사조이면서 사회 문화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팝아트가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패션에도 잔존하고 있어서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복식에 대한 연구(위재선, 나수임, 2004; 이미량, 김문숙, 1997; 정승은, 김혜경, 2004; 양선미, 1996)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식 팝아트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식 감각과 관점으로 재해석된 누보 팝아트¹⁾와는 엄밀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누보 팝아트의 비판과 풍자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패션이 대부분 미국식 팝아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누보 팝아트에 관한 학문적 연구나 이론정립 등 개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두 사조를 비교하면,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는 기성의 오브제들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누보 팝아트는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이거나보다는 서술적이라는 점, 일상의 소재나 작가의 경험을 상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통속적이고 풍자적이되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팝아트와는 차별화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누보 팝아트는 아직까지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유럽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조로써, 앞으로 누보 팝아트의 영향력이 예술계뿐만 아니라 패션계에도 더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 이유는 팝아트가 패션계에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누보 팝아트 역시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식 팝아트가 유럽식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한 누보 팝아트가 관심주제로 다루어질 부분이라고 사려 되었다. 다시 말해서 누보 팝아트라는 장르를 고찰하여 소개함으로써 좀 더 대중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60년대 팝 패션처럼 패션분야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패션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예술과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팝이라는 동일한 코드 하에서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보 팝 이미지의 개념 정립 및 표현기법의 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누보 팝 이미지로 표현된 최근 패션을 실증적으로 분석

· 해석한 후 그에 함축된 의미를 유추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조형적 표현방법 개발과 창조적인 발상을 더해주는 누보 팝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제시해줌으로써 미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의 영역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누보 팝아트의 등장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현재 활약 중인 누보 팝아트의 화가들을 중심으로 누보 팝아트의 특성 및 표현기법을 고찰한 후 주제와 그 의미들을 유추한 결과를 바탕으로 누보 팝 이미지의 개념을 정립한다.

셋째, 누보 팝아트와 패션과의 관계를 규명한 후, 실증적 분석을 위한 틀로 누보 팝아트의 특성들 중에서 패션에 표출되고 있는 누보 팝 이미지의 주제를 유추하여 코드화한다.

넷째, 주제별 특성에 의한 코드화를 근거로 2000년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 중 누보 팝 특성이 표현된 작품들을 선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및 해석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 누보 팝아트에 대한 국내·외 단행본 및 선행 연구, 학위논문 등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누보 팝아트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팝아트와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 실증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에 대해 새로운 코드를 정립한다. 작품은 2000 S/S 이후부터 2009년 S/S 까지 패션전문지인 Collezioni, Collezioni Donna, Code 및 패션 전문 잡지, 인터넷 패션 사이트 등에서 누보 팝아트 특성이 표현된 패션 사진 37점을 선정, 분석하였다. 작품 선정 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신뢰도를 얻기 위해 의류 학 전공 5인의 분석자가 누보 팝의 특징적 요소를 숙지한 후 공통적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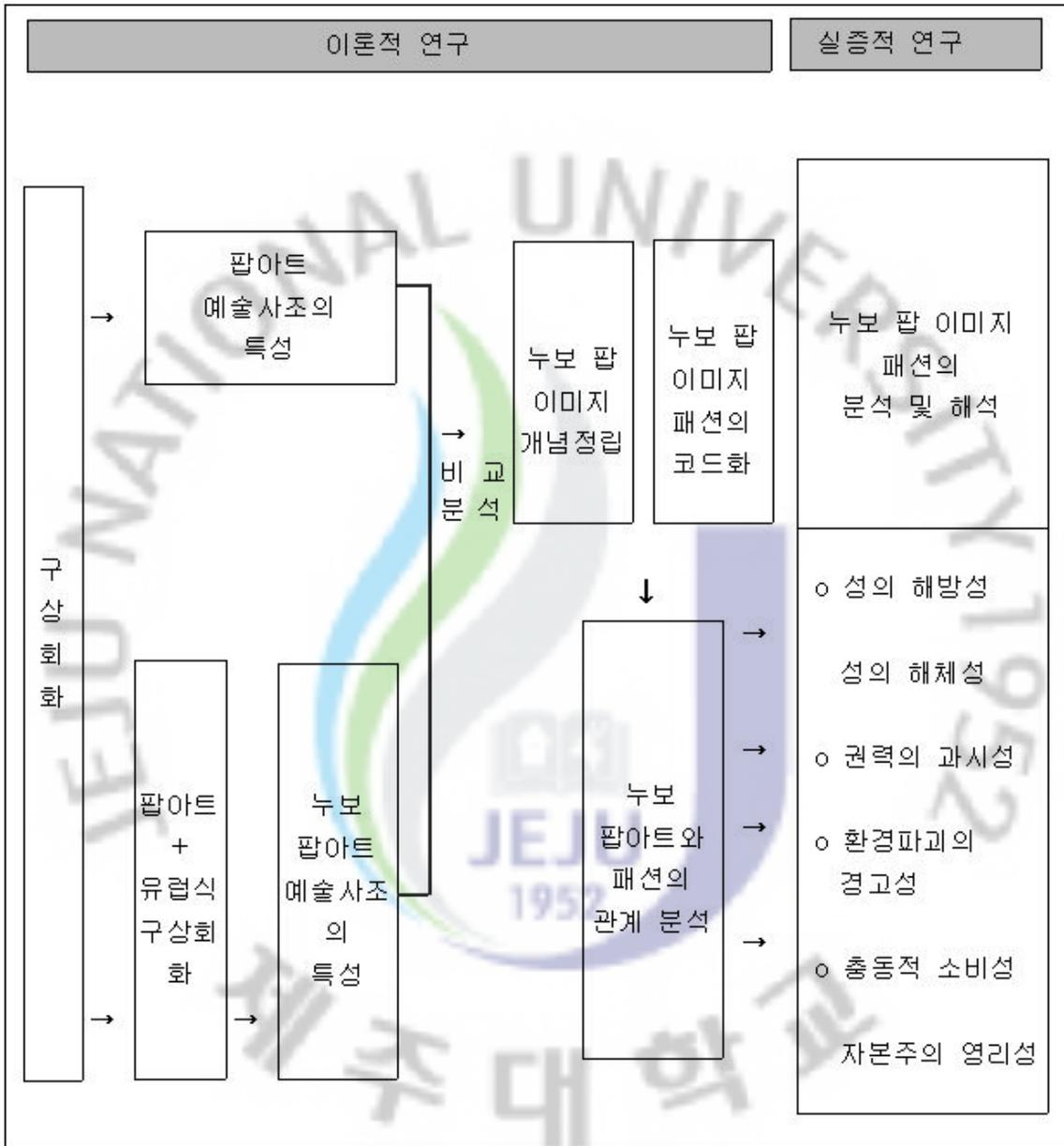
서론을 포함해 총 IV장으로 구성되었으며,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II장은 이론적 연구로, 먼저 누보 팝아트의 발생 배경 및 이념, 그리고 조형적 표현기법을 고찰한다. 팝이라는 동일한 코드 하

에서 유럽식 팝아트와 미국식 팝아트를 비교·분석한 후 유사점 및 차이점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표현기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누보 팝아트(or 팝아트)와 패션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II장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에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주제들을 선별하여 코드화 하였다. IV장에서는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 코드를 바탕으로 누보 팝 특성이 표현된 작품들을 분석·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이 하나의 패션코드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은 물론 미래 패션의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진행과정을 연구모형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연구모형



II. 누보 팝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누보 팝아트의 등장배경 및 사조

21세기는 일 중심의 기능적인 문화에서 여가 중심의 장식적인 문화로, 정신에서 물질로, 가림의 문화에서 노출의 문화로, 무거운 이념의 문화에서 가벼운 웃음의 문화로, 창작의 문화에서 모방과 복제의 문화로, 또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등 문화의 중심과 강조점이 이동함에 따라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도 과거의 단일 미디어에서 복합미디어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문화적 흐름에 따라 일률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유행이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욱 다원화되고 낭만적 혼합형으로 나타나 장식주의와 기능주의의 과장된 조화, 뉴 밀레니엄적인 낙관론과 완벽한 미래에 대한 추구, 즐거움과 유머를 추구(위재선, 나수임, 2004) 하는 등의 팝아트의 특성이 패션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와 각종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치 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가 있듯이 미국 팝아트에 대한 유럽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식 팝아트, 즉 누보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복고주의로 인한 팝아트에 대한 관심과 미국으로 넘어간 미술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유럽의 노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문화발달과 자연 파괴, 전쟁, 현대인의 고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일회용적인 사랑과 성 등 인간성 상실에 대한 대중들의 반성 및 수준 높은 비판의식, 자신만의 세계와 개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미의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누보 팝아트의 이념은 유럽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대중정서로 인해 하찮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미국적 특유의 재미와 재치, 유머와 풍자, 부정보다는 긍정과 탐색을 통한 인간적인 따뜻함, 즉 휴머니즘이다. 따라서 누보 팝아트는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사회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미술사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팝아트라는 규격화보다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한 형태로서 전통 구상회화와 팝아트의 경향이 비판적 의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진엽, 2008).

누보 팝아트는 미국이나 영국의 팝아트와는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1960년대 팝아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팝아트는 사회계층이 무너지고 대중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1960년대 사회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한 예술의 장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대변하는 경향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대중문화의 확

산과 더불어 팝아트는 바로 미술, 영화, 디자인, 건축,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Opera Gallery Seoul, 2008).

이와 같이 팝아트는 잠시 등장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20세기 말에는 네오 팝²⁾이라는 미술을 파생시키게 되었고(최승철, 2006), 최근 유럽에서는 누보 팝아트로 등장하게 되었다. 네오 팝아트 혹은 누보 팝아트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변화 및 변용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의 정체성 역시 팝아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누보 팝아트의 개념과 발생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1960년대 팝아트가 유럽에 전파되어 현재 누보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팝아트는 1960년대 초기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발달하여 화단을 지배하였던 구상회화의 한 경향이다. 팝아트라는 용어는 영국의 미술 평론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가 대중예술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알로웨이에 의하면, 팝아트는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전개되어 유행한 미술사조의 한 양식이다. 특히 당시의 연재만화 <comicstrips>와 선전용 포스터와 같은 응용예술 부분에서 착안되어 과장된 형태와 이미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구상회화’(figurative painting)³⁾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팝아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추상표현주의⁴⁾’의 무겁고 난해한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 대중과 공감할 수 있으며 대중의 통속성을 비판하는 복합적인 미술장르이다. 그래서 팝아트 작가들은 기존의 엄숙주의에 심취된 선배 예술가들과는 달리 대중문화를 향유하며, 마음속의 고향이 아닌 현실의 아스팔트나 빌딩, 마릴린 먼로, 케네디, 코카콜라, 미키마우스 등을 그렸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또는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화면에 담는 것으로, 일상의 이미지나 물체를 기호화시켜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를 다룬 것이다(성남아트센터 미술관, 2008).

이와 같은 미국의 전위예술운동인 팝아트는 곧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유럽국가에는 팝아트의 주제와 기법에 접근한 작가들이 몇몇 있었지만 서로 상이한 전통과 생활조건으로 미국 팝아트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레스타니(P.Restany)가 신사실주의(Nouveaux Realisme) 선언을 공포한 이후, 60년대 유럽은 레스(M.Raysse), 자께(A.Jaquet), 팔스트립(O.Fahistron) 등이 팝아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앙포르멜(Informel) 이후, 유럽은 신사실주의와 다다적 앗상블라주(asmsemblage)⁵⁾에 열광하고 있어서 본

격적인 팝아트(순수한 미국의 팝아트)가 성행하지 못하였다(강현정, 2001). 그러므로 전통성이 강한 유럽의 팝아트는 미국식 팝아트와 신사실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띠었으며, 1970 ~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구상회화로의 복귀현상으로 신구상회화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1960년대의 유럽의 팝아트는 사회 · 문화적 영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신사실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의 자유구상주의회화와 팝아트가 만나면서 이루어졌다(<http://blog.daum.net/okeum/15108986>). 유럽식 팝아트인 누보 팝아트도 신사실주의와 신구상주의 혹은 프랑스의 자유구상회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므로 누보 팝아트의 사조를 연구하기 위해 신사실주의와 신구상회화(Nouvelle Figuration) 및 프랑스 자유구상회화의 특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신사실주의는 1960년대 초 프랑스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가 기획한 '누보레알리즘(Nouveau-Realisme)'전에서 시작된 앙포르멜 이후의 새로운 미술 경향을 말한다. 누보레알리즘 작가들은 추상표현주의의 반동으로, 현대 도시적 현실을 제시하며 반예술을 전개하였다. 레스타니는 이 운동의 특성을 '오브제의 모험'이라 밝혀 예술적 좌표를 다다(Dada)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예술이 산업적 · 공업적인 소비문화로써의 새로운 자연을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사실주의 작가들 모두가 팝아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들 가운데 마르샤르 레이스(Martial Raysse), 알랑 자께(A.Jaquet),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레이몽 앙스(Raymond Hams), 폴스트렘(O.Fahistron) 등이 팝아트에 가장 근접하였다.

레이스의 작품 접근방법은 영미의 작가들보다는 지적이고 풍자적이기는 하지만, 그는 영미의 팝아트 작가들과 이미지나 기법을 같이 하는 유일한 신사실주의자였다. 그는 1962년 작품<해변>이후, 너절한 물건들로 만든 앳상블라주에서 벗어나 사진처럼 재생한 이미지들의 실험적인 팝아트로 전환하였다. 그가 즐겨 그리던 이미지는 목욕하는 미녀로, 풍부한 에로티시즘과 코믹한 성격이 작품의 특징이다. 알랑 자께는 과거 대가의 명화를 야한 색채로 상스럽고 사진처럼 그린다는 점이 레이스와 공통점이다. 니키 드 생팔은 석고나 장난감으로 만든 앳상블라주에다 총을 쏘아대는 행위를 통해 신사실주의적 제스처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브라질 태생인 폴스트렘은 스웨덴, 로마, 파리,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작품은 앵글로 아메리칸식 팝아트와 신사실주의의 특성의 중간에 있으며, 1960년대 초부터 잡지 삽화나 만화들에서 발췌한 팝 이미지들을 교묘하게 추상만화로 묘사하였지만, 그의 미술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그 외에 신사실주의자이면서 팝 지향적

인 작가들과 집단이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작가들은 미국식 팝아트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벨기에의 폴 마라와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베네룩스(Benelux) 그룹 중에 앳상블라주파인 젠틸스, 판 에크 등이 포함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몇몇 작가들도 팝적인 범주에 속한다(루시 R. 리콰드, 1985).

1968년 유럽은 5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혁명’(Revolution de Mai)⁶⁾과 구상회화의 복권이 일어났다. 학교 내의 문제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프랑스 뿐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사회·경제·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혁명 중에 나타난 문구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인종차별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으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구상회화의 전통을 계승한 작가들은 민중화실을 중심으로 체제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자와의 연결을 꾀하는 한편, 포스터 등을 통해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배포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만큼 프랑스의 구상회화는 여러 가지로 미국의 팝아트와 구별되며, 평론가들에 의해 신구상회화란 용어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 구상회화에서 복귀된 신구상회화는 자유구상회화로 발전하여 로베르 콤파스(Robert Combas) 등 팝아트와 연결되면서 낙서화의 성격이 강한 작가들이 배출되었다(<http://blog.daum.net/okeum/15108986>).

이러한 신구상회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그 동안 미국중심의 미술흐름에 맞서 유럽 각 지역에서 자국의 문화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트랜스 아방가르드, 독일은 신 표현주의, 프랑스는 자유구상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유사하게 전개되었고, 이 사조들은 유럽의 팝아트에 영향을 미쳤다.

누보 팝아트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자유구상회화는 1970년대 말경 ~ 1980년대 초기 예술계에서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면서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에 대립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자유구상회화는 프랑스의 만화책방인 방 드 데시네 (Ban de Dessinee)의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자유구상회화 작가들은 만화에서 받은 많은 영향을 잡다한 양식과 통속적인 이야기로 표현하였다(강진이, 1995). 그리고 문자나 낙서의 기법을 이용해 유아적인 것, 혹은 저속함, 장난기로 가득 차 있는 자유분방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로베르 콤파스를 들 수 있다. 그는 팝아트적 성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으며 고의적인 철자법의 오류, 서툰 컬러 그래픽, 기호와 단어 등을 이용하여 저급문화의 측면을 파헤치고자 하였고, 역사책, 외설문학 등이 주 소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자유구상회화는 현실이 반영된 독일의 신

표현주의회화나 대중문화상을 주로 다룬 미국의 뉴 페인팅에 비해 작가의 감성이 담긴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페인의 에퀴포 크로니카(Equipo Cronica)라는 창작단체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복잡하고 암울한 정치 사회를 비판하고자 스페인식 팝아트를 창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에퀴포 크로니카는 스페인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스페인의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1939년~1975년 장기 집권) 통치 기간인 1960년대 ~ 19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 스페인을 대표하는 팝아트 창작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 팝아트의 형식에 스페인과 라틴 미술 특유의 정열적이고 강렬한 원색을 도입하여 스페인 정치에 대한 비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하기까지 팝아트 기법을 이용하여 비틀고, 야유하면서 공포가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다(<http://blog.naver.com/Quixote80/40047839136>).

그 외에 친구상회화의 대표적인 작가들로 에드아르도 아로요(Eduardo arroyo), 제라르 프로망제(Gerard Fromanger), 질 아이오(Gilles Aillaud) 등이 있다. 에드아르도 아로요(Eduardo arroyo)는 스페인 출신이나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였던 프랑코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기성품이나 낱말 및 성분을 다루었다. 제라르 프로망제(Gerard Fromanger)는 사진 위에 인물을 채색하거나 콜라주 형태의 작업을 주로 하였고 일상의 풍경을 변형시키며 뒤틀어버리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작품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친구상회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친구상회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1970 ~ 1980년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각국에서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추상회화와 대립되며 과거의 모던 이전의 시대미술로 되돌아가고자 ‘예술의 대중화’, ‘구상성의 회복’이라는 이념하에 전개된 회화이다. ‘그린다’라는 회화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 친구상회화는 붓 작업을 부활시키고 통속적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그것들을 중첩시켜 내용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가의 주관성 및 감정을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서술적 의미구조가 강조된 형식으로, 미술 작품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와 사회, 문화적 관계, 도덕적인 문제 등의 내용과 주제의식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대중매체에서 소재와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패러독스, 꿈과 희망을 표현하려던 과거 작가들의 재조명, 모더니스트들이 퇴폐적이라고 여기던 인물, 신화, 종교, 상징 등의 요소들을 다시 등장시켰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 재료와 오브제들을 작가의 주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미래지향적인 경향과 더불어 르네상스

내지는 전통에 내재된 요소들로 재발견하였다. 또한 신구상회화의 작가들은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던 이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적 태도를 취하던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적 엘리트로서의 관람자 개념이 일반대중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바로 이 특징이 누보 팝아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려 되었다.

둘째, 신구상주의회화는 영역간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 ~ 1970년대가 조각 또는 입체작품 위주의 미술운동이 전개된 시기였다면, 1970 ~ 1980년대에는 회화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시기이다. 회화에는 오브제가 첨가되거나 화면자체에 입체적 성격이 부여되고, 조각에서는 색채 사용이 이루어졌고 회화와 함께 전시되는 것 외에도 공연예술과도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의 팝아트는 미국식 문명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유럽식 풍토로 인해 본격적인 팝아트가 성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파리 중심으로 유럽의 복잡하고 어두운 정치 사회적인 측면이 미국과는 달리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사회비판의식을 담게 된 누보 팝아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보 팝아트는 단순히 팝아트라는 규격화라기보다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한 형태로서 전통 구상회화와 팝아트의 경향이 비판적 의식을 통해 만난 것이며, 프랑스의 로베르 콩바스와 스페인의 안토니오 데 펠리페 (Antonio de Felipe) 외에도 현재 많은 작가에게서 누보 팝적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 누보 팝아트 등장 배경

	1960		1950
미 국	- 팝아트 발전	←	- 팝아트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오브제 사용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다룸 - 회화적 붓 자국의 결여, 실크스크린, 벤데이 망점, 아상블라주, 콜라주, 컴바인 페인팅 기법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추상미술에 반대하며 등장 - 미국의 화려한 소비경제에 매력 느낌 -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를 모티브로 함



	1960	1970	1980 ~ 1990	2000
유 럽	- 신사실주의 등장	- 신구상 회화 전개	- 자유구상회화 전개	- 누보 팝아트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도시적 현실을 제시 -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미술사조 거부 - 예술가의 눈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과거 복귀 현상) - 구상성의 회복 - 예술의 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가 작품의 영감의 원천 - 유아적 저속함, 자유분방, 퇴폐적 - 잡다한 양식, 통속적 이야기 - 작가의 내면세계 중시 - 주제, 소재의 자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머니즘이 이념 - 자연과 인간관계 중시 - 일상적인 오브제 이용 - 작가의 강한 주제 의식 - 현대사회 문제점 비판 - 사실적 묘사 - 문자 및 레터링 - 패러디 - 밝고 채도 높은 색상 - 만화, 광고 이미지 차용 및 콜라주 기법 - 설치작품(조형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팝아트 전파 - 순수한 팝아트의 형식이 아닌 신사실주의와 혼합 - 마르샬 레이스, 알랑 자깨, 니키드 생팔, 레이몽 앵스, 폴스트림 등이 미국식 팝아트 기법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강한 주제 의식 - 영역간의 수렴현상 		

2.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의 비교

실질적으로 1950년대 중엽 런던에서 시작된 팝아트의 초기 이미지는 주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영국에 범람하였던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바탕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팝아트는 특히 경제적 황금기인 미국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고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호세 피에르(Jose Pierre)나 스웬슨(Swenson) 그리고 샘 헌트(Sam Hunt)⁷⁾ 등이 팝아트를 근본적으로 미국적인 미술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허현진, 2002). 이러한 점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팝아트의 형식이나 기법들이 미국적인, 바로 미국의 팝아트라 여기게 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보 팝아트는 팝아트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형식과는 큰 차이점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달라진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즉, 미국의 팝아트가 산업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또는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화면에 담는 반면, 누보 팝아트는 은유적으로 현대 사회를 풍자 및 비판을 표현한 것이다.

최근 팝아트의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특히 유럽의 누보 팝아트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누보 팝아트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누보 팝아트의 개념 정립을 위해 팝아트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 팝아트 작품들과 누보 팝아트 작가라고 소개되거나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에 표현된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미국의 팝아트

주요 원천이 대중문화인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다루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대중적, 개방적 세계관으로 형성되자, 인식론적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주관적 중립성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중립성이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팝아트는 해석상의 시각에 따라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또는 예찬으로 보기도 하지만, 현실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미술로 정착되었다(허현진, 2002).

다시 말해서 팝아트 작품이 작가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나온 산물이 드문 것은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택되기 때문이다(에드워드 루시-스미

드, 1988). 그러므로 팝아트에 사용된 작품의 주제는 가공된 특정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팝아트는 신문이나 잡지 속의 사진, 만화, 영화, 광고 포스터, TV화면 등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상업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품미학에 대한 진정한 비판적 대안의 제시보다는 대중이미지에 기대어 유리함을 획득함으로써 소비문화에 굴복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홍태희, 2006).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약하였던 팝아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팝아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다시 예술적 오브제로 재창조하였다. 그는 아이스크림, 파이, 햄버거 등 일상적인 물체를 오브제화하였고 이후 라이터와 변기, 차의 엔진, 빨래집게 등을 거대하게 확대 하는 등 크기, 모양, 형태, 본질을 바꾸는 변화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은 팝아트의 비개성적 반복의 개념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다. 그는 스프 강통이나 마릴린 폰로 등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으로 한 화면 속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게 제작함으로써 기계적인 방법의 복사 및 반복을 이용해 특수한 것을 보편화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전이시켰다. 다시 말해서 그는 충격적인 사건들의 이미지나 스타 또는 유명한 상표의 제품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항상 보는 장면처럼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끼게 하였다.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는 지도, 숫자, 자, 컴퍼스 등 사물을 화면상에도 도입하여 일상적으로 흔한 이미지 재현으로 그려진 회화이면서 오브제로도 표현하였다(강현정, 2001).

리히텐 스테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은 작품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으로 그린 작품을 기계적으로 한 번에 표현된 것처럼 여기게 제작하였다. 그는 주로 연속 만화의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캔버스에 그렸다. 만화의 이미지를 선택한 것은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로버트 라우첸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는 작품 <침대(Bed)>에서와 같이 오브제 위에 자유스러운 붓질을 가하여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통해 예술과 생활의 틈을 없애며 이미지와 오브제의 합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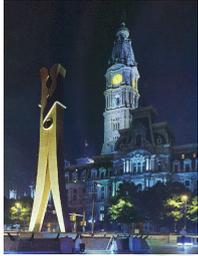
그 외의 톰 웨셀만(Tom Wesselmann, 1931~2004)은 작품에 미국의 성적 방임주

의를 등장시켰다. 예를 들어 콜라주(collage)와 회화 연작인 <위대한 아메리칸 누드 (Great American Nude)>는 1960년대 초 남성들이 누리던 성적 환상들을 거듭 작품화한 것이다. <위대한 아메리칸 누드 no.92, 1967>에서는 핑크빛으로 표현된 여성 누드가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러한 <위대한 아메리칸 누드> 연작 작품들은 마치 백화점 카탈로그나 상업광고처럼 천박한 에로티시즘을 표출한 것이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누드화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비너스를 염두에 두고 그리기 때문에 성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웨셀만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신격화된 여성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의 작품 속 여인들은 해변에서 잘 그을린 피부에 화장을 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는 여인들로 현 시대의 대표적인 미국 여자들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팝아트 주제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서 흔하고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며, 또한 인간이나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가공된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이미지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성남아트센터 미술관, 2008). 예를 들어 마릴린 먼로 또는 미키마우스, 코카콜라 등의 이미지들의 차용은 대중의 감각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내포된 사회의 통속성, 비개성적인 현대사회를 담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화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팝아트 작품들의 형태는 <표 3>과 같이 주로 채도가 높고 화려하며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회화적인 붓 자국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순한 형태와 날카로운 외곽선과 경계선, 그리고 깊은 공간의 은폐가 포함되었다(임은혁, 2005). 또한 팝아트 이전의 작가들처럼 예술적으로 직접 붓으로 그리는 행위보다 장난스럽게 혹은 디자인적으로 그리거나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즉, 낙서 같은 문자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캔버스에 오브제를 붙여 표현하는 앳상블라주 또는 컴바인 페인팅, 광고, 만화와 사진의 이미지들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팝아트는 모방과 복제 및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싸구려 이미지 등 기존 미술에서 금기시되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고급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였다.

<표 3> 1960년대 전후 팝아트 작품 분석

작가	작품	특징	표현 기법
리히텐 스테인		-만화, 신문, 광고, 주변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주로 다룸	-굵은 선, 높은 채도, 강렬하며 단순화 된 색채 이용 -벤데이 망점
	a. <크라임 걸>(1964)		
앤디 워홀		-확일적, 대중적 이미지 다룸	-단순 컬러 사용 및 강한 대비 -실크스크린
	b.<캠벨수프광통>(1962)		
툼 웨셀만		-미국의 성적 방임 주의를 표현	-콜라주 -포르노그래픽 요소를 도입 -마티스 유화 작품 패러디
	c.<위대한 아메리칸 누드 #92>(1967)		
클래스 올덴버그		-일상적 이미지를 크기, 형태, 모양, 본질로 바꾸는 변화 과정 이용	-일상적인 물체의 오브제화
	d. <빨래집게> (1976)		
로버트 라우젠버그		-엄숙한 고급미술에 대한 허무주의적 도전	-앗상블라주(혹은 컴바인 페인팅)기법
	e. <침대>(1955)		
제스퍼 존스		-일상적 사물, 기호를 재창조	-남화법 -대칭과 균형을 강조하는 레터링
	f. <성조기>(1958)		

2) 유럽의 누보 팝아트

누보 팝아트는 미국의 팝아트보다 새로운(New) 팝아트라는 의미이며, 활동하는 작가의 대부분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누보 팝아트(Les Nouveaux Pop)라 칭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미국 팝아트를 유럽식 관점에서 재해석한 누보 팝아트 작가들 역시 현대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의 다양한 면을 묘사하기 위해 TV, 만화책, 영화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에서 차용된 도상들을 작품에 삽입하면서 인체와 일상생활의 오브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갤러리드리, 2008). 이와 같은 대량소비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이 60년대 미국의 팝아트와 유사하다. 앤디 워홀과 같은 대표적인 미국 팝아트가 캠벨수프 캔이나 합성세제 브릴로 박스 등 기성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반해, 누보 팝아트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킨 사색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로 좀 더 은유적으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미술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에 의하면,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를 비교한 결과, 누보 팝아트는 무작정 자신의 근본 혹은 체험을 상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통속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 즉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 팝아트와 구별된다”고 기술하였다(“유럽 ‘누보팝’ 한자리서 본다”, 2007). 구체적으로 누보 팝아트는 소재의 기반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누보 팝아트의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기 때문에 미국적 팝아트와 차별된다. 레스타니는 이를 ‘도시적, 산업적, 광고적 리얼리티의 시적 재활용(poetic recycling)’이라 표현함으로써 미국 팝아트의 단답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http://blog.naver.com/yeominlaw/110022499159>).

그러므로 누보 팝아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활약 중인 누보 팝 작가들이 작품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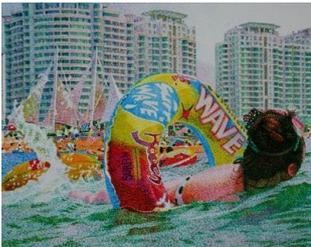
프랑스의 필립 위아르(Pilippe Huart, 1953~)와 실비 파주프로스카(Sylvie Fajfrowska, 1959~), 이탈리아의 크래킹 아트 그룹(Cracking Art, 1993~) 및 안토니오 데 파스칼(Antonio de Pascale, 1953~), 스페인의 안토니오 데 펠리페(Antonio de Felipe, 1957~), 벨기에의 윌리엄 스위트 러브(William Sweetlove, 1949~), 아르헨티나의 세실리아 쿠바르(Cecilia Cubarle, 1975~), 스웨덴의 마리아 마누엘라(Maria Manuela, 1959~)와 중국의 샤오판(Xiao Fan, 1954~)과 리우 밉(Liu Ming, 1957~)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양한 국적이지만 프랑스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유머, 은화함, 대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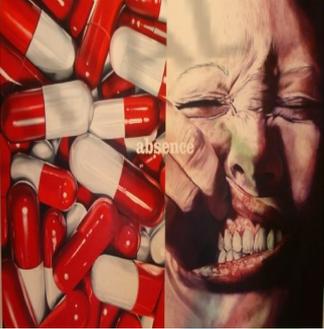
리고 풍자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봄 ‘누보 팝’ 이라는 타이틀로 파리 빌라 타마리스(Villa Tamaris)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누보 팝아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4> 누보 팝아트 작품 분석

작가	작품	특징	표현 기법
크래킹 아트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에서 소재 취함 -자연파괴와 동물학살에 대한 문제점 비판, 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미술(조형작품) -컬러풀한 색채 표현
	a.<'펭귄' '곰'>(2005)		
윌리엄 스위트 러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 개인의 욕망과 취향의 획일화, 동질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미술(조형작품) -합성수지이용 -키치적인 붉은 색상 이용
	b.<부츠를 신은 큰 슈나이저와 작은 슈나이저>(2006)		

안토니오 데 펠리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매체 이미지 이용해 패션의 과도한 상업주의 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아크릴 -보그 잡지 패러디 -광고의 속성인 문구 이용 -밝고 채도 높은 색상 이용
	c. <Voca Vogue>(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반 엘리트주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아크릴 -영화작품 패러디
	d. (코카콜라 소녀)(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性)의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아크릴 -영화작품 패러디 -대중스타, 만화주인공 이미지 패러디 및 차용
	e. <아비뇰의 처녀들>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 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아크릴 -영화작품 패러디 	
f. <애니콜과 행복한 눈물>(2008)			
리우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 고층건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로 인간 문명 비판 -동적 장면을 정적인 기법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VC에 유채 -점묘법
g. <파도> (2006)			

<p>샤오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돔, 풍선, 사탕 이미지 이용한 다양한 꽃 표현 -에로틱한 욕망의 은유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유채
<p>h. <100송이 꽃>(2005)</p>			
<p>필립 위아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캡슐, 광고 이미지로 소비문명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유채 -사실적 묘사 -강렬한 원색 사용
<p>l. <신 스트레스 건망증>(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위, 매스, 탄산음료 이미지로 외모지상주의 현상을 고발 -강렬한 색상 이용해 강한 메시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캔버스에 유채 -강렬한 원색 사용
<p>j.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1996)</p>			
<p>안토니오 데 파스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지에 그려진 긴급 상황이 익숙한 포장지 속에서 코믹하게 표현 -과장 및 확대표현을 통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중들의 무감각적 반응과 태도를 환기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봉지, 과자 포장 케이스 패러디 -사실적 묘사 -확대 표현
<p>k. <리얼타임 코코팍스>(2005)</p>			

필립 위아르는 마케팅과 소비가 현대인의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즐거운 모호함과 모순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를 권총의 대위적 반대위치에 두거나 약 캡슐 옆에 캔디를 배치한 작품들에 대한 의미해석은 전적인 관객의 해석으로 전이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안토니오 데 펠리페는 60년대 할리우드 아이콘을 비롯하여 벨라스케스, 피카소, 몬드리안 등의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존경 주제를 스타군상을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했으며, 그 외의 강한 역설적 표현 작품들을 통해 독창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실리아 쿠바르는 영감을 삶에 대한 애착과 그림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서 얻고 있다. 그녀는 광고세계의 영향력을 예술과 융합시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유머, 자상함, 그리고 예민함의 느낌을 다루는 방식으로 작품들의 부적절함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한다.

마리아 마뉴엘라는 전통적인 일본의 목판과 현대 연재만화 기법, 그리고 기모노와 미니스커트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술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윌리엄 스위트러브는 복제 개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특징인 과도생산과 과도소비의 문제점을 일깨우기 위해 부조화를 구성하는 강한 요인들을 사용하고 있다(갤러리 트리, 2008).

리우 밍은 중국의 높아진 경제발전과 함께 고소득의 소비생활을 후기 인상주의 기법을 통하여 풍요 속 빈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유럽에서 누보 팝아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작가들로는 파리에서 활동 중이며 <그림 1>의 만화적인 표현으로 영웅을 풍자한 군더문더 에로(Gundmundur Erro, 1932~), <그림 2>의 타투(Tatto) 페인팅과 낙서 등 다양한 기법으로 영웅이나 전쟁 또는 현대 사회를 유머러스하고 키치적으로 재해석한 로버트 쿵바스, <그림 3>의 여성과 남성의 얼굴이나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의 얼굴, 그리고 누드 작업으로 절망과 소외를 표현한 폴란드 국경도시 출신의 조안 코르노(Johanne Corno, 1952~), 그리고 <그림 4>와 <그림 5>과 같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예찬하는 프랑스 여성 작가인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과 네델란드 출신이지만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콜라주를 이용해 베를린의 전쟁 후의 모습 및 자연풍경 등을 풍자하는 팀 뢰로프스(Tim Roeloffs, 1965~) 등이 있다. 이들은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표현기법 측면에서 팝아트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누보 팝아트의 뚜렷한 주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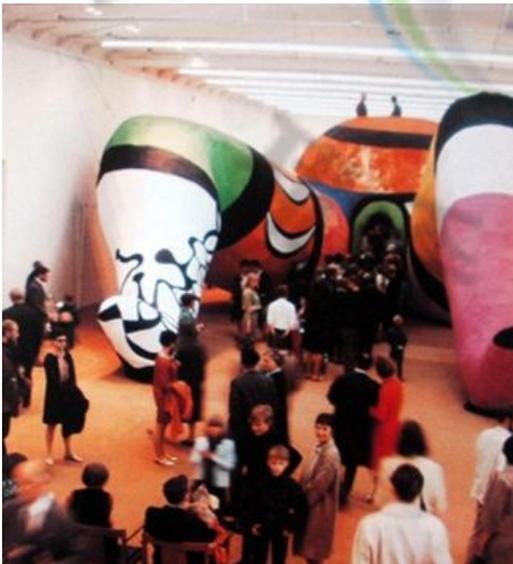
<그림 1> 1993 Gundmundur Erro,
'Magic space'



<그림 2> 2004 Combas Robert,
'War'



<그림 3> Johanne Corno, 'Face #121'



<그림 4> 1966 Niki de saint phalle,
'Hon'



<그림 5> 1966 Niki de saint, phalle
'Nana'

3)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의 비교 분석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사점은 현대 산업사회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표현기법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팝아트는 왓상블라주 및 컴바인 페인팅기법으로 기성물질이나 이미지를 주워 모아 기존 이미지를 적절히 선택 · 재결합 한 것으로, 예술을 비개성적이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누보 팝아트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캔버스 위에 비닐로 만든 옷을 붙이는 등의 방식과 같이 광범위하게 오브제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 모두 광고와 같은 선명한 효과를 위해 레터링 기법은 물론 고대 건축물 등에 인간들이 남긴 듯한 낙서, 그림, 글자를 표현한 그래피토(Graffiti)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팝아트는 앤디 워홀이 할리우드 스타와 모나리자 등을 패러디하였고, 누보 팝아트도 유명한 패션 잡지와 과자 케이스 이미지는 물론 리히텐 스테인의 벤데이 망점과 쇠라의 점묘법 등을 패러디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누보 팝아트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독특한 조형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작품의 소재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 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라는 점이다(<http://blog.naver.com/leenam83/60044492342>). 즉, 팝아트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단순명료하게 표현하여 상품선전이나 광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은유적으로 세태를 비판하며 사색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로 현대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사회 풍자적인 요소와 유머러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작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표현되고 심지어는 대상을 파괴해 버리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소재를 찾음으로써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누보 팝아트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럽의 문화예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현양식과 기법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작가들은 붓을 이용해 직접 그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마치 광고포스터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물이나 자연물의 형태를 사실적이지만 키치적으로 표현한 조형작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고, 사진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초현실주의, ‘아르 브뤼’⁸⁾, 캐리 커처, 과거 로마시대의 벽화풍의 표현기법을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여러 기법이 한 작품에 섞여 표현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누보 팝아트 작품들은 팝아트처럼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었고 주변의

흔한 이미지들을 소재로 하며 만화나 콜라주 등의 오브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누보 팝아트 작품들 대부분이 작가의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점, 성(性), 정치나 영웅, 자연환경, 소비문화, 문화사대주의 등의 뚜렷한 주제의식가지고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유머, 온화함, 대비, 그리고 풍자 등을 통해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팝아트와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팝아트와 누보팝아트의 이념 및 주제, 특성 그리고 표현 기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 5>와 같다.

<표 5>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의 비교

	팝아트	누보 팝아트
이념 및 주제	-기존 예술과 사회에 대한 부정보다 긍정과 탐색에 관심 -공공성에 기초를 두고 대중문화의 주제 와 공존	-각자의 경험을 풍자적, 통속적으로 표현 -휴머니즘을 중시
특성	-미국 특유의 유머와 위트 -주로 채도가 높은 색채 사용, 회화적 붓 터치와 결여, 단순한 형태, 날카로운 외곽선과 경계선 -이미 익숙한 이미지들을 재인식	-작품 소재나 재현방법에 있어 서술적 -일상적 소재를 이용해 은유적으로 세태 비판, 사색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 고리를 놓지 않으 려는 시도 -회화적 표현(작가의 직접적 묘사)
표현 기법	-실크스크린 -콜라주 -오브제(앗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벤데이 망점 -문자, 레터링, 그래피토 -만화이미지 차용 -패러디(60년대 스타 및 영화작품)	-오브제 -콜라주 -사실주의 묘사 -문자, 레터링 -조형 및 조각 작품 설치 -패러디(60년대 스타 및 영화작품 및 벤 데이 망점, 점묘법) -다양한 기법의 혼합

3.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성 분석

앞에서 누보 팝아트와 미국식 팝아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누보 팝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보 팝아트 혹은 유럽 팝아트의 작품들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소비문화와 경제, 대중문화, 문화 사대주의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1)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20세기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성적 도구’로 비하되어 온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인 양상으로 외형상 여성들의 기본권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 성적 도구화의 양상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몸을 파는 전통적인 의미의 성 상품화 이외에도 20세기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포르노그래피의 발달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비하해왔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포르노그래피의 중심이 텍스트에서 시각 이미지로 넘어가면서 성 상품화 흐름은 더욱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바탕에는 사진기술과 동영상의 발달, 광고 및 미디어의 발달이라는 20세기 특유의 현상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이주현, 1998). 최근에는 여성의 성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와 관심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사회적인 큰 충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미술과 문학의 소재뿐만 아니라 누보 팝아트에서도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다루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 데 펠리페의 작품 <Las dibus de Avignon(아비뇰의 처녀들)>을 살펴보면, 섹시한 포즈와 표정을 취하고 있는 인기영화의 여배우나 만화영화 속의 다양한 여주인공들을 차용해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을 패러디 한 것으로, 피카소 작품의 배경과 5명의 여성들이 위치해 있는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작품 속에 누드 상태의 여성들은 무엇인가 몰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전시되기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누드화에서 볼 수 있는 부자연스런 몸의 비틀은 성적 자극을 위한 것이어서 실제적인 감정표현은 격감된다. 이 작품의 여성상은 남성 중심적 시각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긍정적인 여성 대신 무기력한 대상으로 남성을 유혹하거나 성적 종속물로

대치된 여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노희선, 2004).

펠리페의 작품 속 여성들도 풍만하고 늘씬한 몸매와 윙크를 하는 등의 섹시한 표정으로 마치 미인대회 장면의 여성들처럼 누가 더 섹시하고 아름다운지를 뽐내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여기에서 피카소 작품의 패러디와 섹시한 여성 이미지의 만화적 표현은 작가가 아크릴로 팝아트 기법을 이용하여 성의 상품화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것이다. 즉 작품 속의 여성들은 대중 매체가 만들어 낸 인물들이며,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속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외형적인 여성의 미(美)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이다.

샤오판의 2005년 작품 <100송이 꽃(Cent Fleurs)>은 100개의 캔버스에 콘돔이나 풍선, 사탕 등으로 꽃의 수술 이미지를 그렸다. 이는 작가가 신혼 초기에 느낀 감정들을 상상의 꽃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전에 미처 몰랐던 인간 형체의 미와 아름다운 에로스로 받기된 남성의 성기를 이용해 에로틱하면서도 재치 있는 발상과 상상력으로 개성 있게 표현된 작품이다.

니키 드 생팔은 프랑스 출신의 팝아트 경향을 보이는 여성 작가이면서 신사실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로 2002년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주로 조형 작업과 설치미술 작업을 하였으며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를 표현하였다. 그녀는 일찍부터 여성 및 문화적 소수자의 존재에 관한 공공연한 표현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페미니즘 미술의 가능성을 보인 선구자이다. 그녀의 자화상인 캐릭터 '나나'와 공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술의 대중적인 소통 가능성을 추구한 작가로서,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보편적인 조형 언어로 승화시킨 작가이다(<http://blog.naver.com/ohyemina/30012227100>). 작품 <나나(Nana)>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신체를 부풀어 오른 가슴과 배 그리고 엉덩이로 표현하여, 그리스적 고전미인의 날씬한 몸매와 우아한 취향을 배격하는 등 고정적인 사회적 통념을 비웃고자 하는 작품들이다. 또한 화려하고 현란한 색채 및 패턴을 이용해 당당하면서도 액티브 한 여성을 유쾌하게 형상화하였다. 그녀의 다른 작품인 <Hon>, 일명 <자궁방>인 이 작품은 길이 29미터, 높이 6미터의 대형작품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하였다.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거대한 여성의 질속으로 관객들이 들어가 그 비밀스러운 여체의 구석구석을 감상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마치 남성에 대한 증오심도 없애고 남성의 성적 폭력성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설치미술은 하나의 사회적 정화장치로 남녀 간의 상호이해와 화해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구 남성의 미의식과 비정상적인 욕망과 은폐된 폭력성을 작품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여성으

로서의 생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http://blog.naver.com/minjae772/130017336941>). 그녀가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당한 강간과 이혼 등으로 인한 정신쇠약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을 시작했듯이 그녀의 작품들은 여자로서 겪었던 불행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은 아르 브뤼의 일종으로, 예쁘게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마티에를 통하여 거칠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조안 코르노는 폴란드 국경도시 출신으로, 주로 캔버스에 유화와 아크릴로 여성과 남성의 인물이나 누드를 강렬한 색상 및 붓 터치를 이용하고 있다. 코르노 작품 속의 인물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남성의 모습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기가 애매모호하다. 또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몬로의 얼굴을 실크스크린 한 작품처럼 마돈나 같은 이미지의 육감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인물표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명하고 강렬한 색상뿐만 아니라 대담한 검정색상을 사용한 명암 표현은 인물들의 우울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느끼게 하며 성의 정체성에 대한 괴로움과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나며, 그 전쟁으로 인해 영웅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는 경제와 자국의 이익 또는 평화 등을 비롯해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매우 예민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와 그로 인한 시민운동, 전쟁과 영웅에 대한 소재는 미술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로베르 콩바스는 전쟁과 영웅 등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고 있는 프랑스의 팝아트 작가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전쟁(War)>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유럽의 트로이 전쟁,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등 신화와 중세 전설 속의 영웅이나 전쟁 등 친근한 소재를 유머러스하고 키치적으로 재해석하여 풍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초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장난스럽고 퇴폐적으로 표현하며, 팝아트를 비롯해 추상주의, 야수파, 아르 브뤼, 초현실주의 등 20세기 서양미술사조 기법 대부분을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합리주의와 이성적 과학주의를 거부하고 고발하고자 함이며,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기울고 있는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는 프랑스의 노력과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더문더 예로는 작품 <마법의 공간(Magic space)>에서는 영웅과 마법사들을 화면에 만화적으로 짝 채워 표현하였고 서로가 최고라고 여기며 서로의 힘을 과시하

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안토니오 데 펠리페는 2007년에 있었던 삼성 비자금 이슈를 로이 리히텐 스테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을 <애니콜과 행복한 눈물(Happy tears avec Anycall)>이라는 작품으로 패러디하여 풍자하였다. 이 작품은 <행복한 눈물>의 형식과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작품 속의 눈물 흘리는 여자의 표정과 삼성 애니콜 핸드폰 등의 이미지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3)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그 피해가 인간은 물론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돌아오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천식, 기형아 출산 등의 질병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사막화, 천연자원과 동물들이 사라지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크래킹 아트 그룹을 비롯해 많은 작가들이 환경적인 문제 또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차갑고 답답한 도시환경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괴로움, 오염되고 훼손되어버린 자연에 대한 문제점을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주요 주제가 된 것이다.

리우 밍의 작품 <파도(Wave)>는 여가 생활의 장소인 바다조차 도시와 인간문명에 의해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음을 점묘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리우 밍이 정적인 표현에 적합한 점묘 기법을 동적장면에 응용한 것은 휴가를 즐기는 와중에도 마음을 짓누르는 일상생활의 부담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크래킹아트 그룹은 작품을 통해 그룹의 결성목적인 자연파괴와 동물학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분홍 펭귄 & 초록 곰(Pingouin rose & Ours vert)>에서는 자연색과 반대되는 형광색 컬러의 복제된 펭귄과 곰의 조형작품을 설치하여 인간에게 더 이상 자연파괴, 동물학살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시위 또는 경고를 하는 듯하다.

팀 퇴로프스는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베를린 중앙지역의 예술가 촌인 타헬레스(Tacheles)⁹⁾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로서, 사진과 광고 이미지 등을 콜라주 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퇴로프스 작업은 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베를린 거리풍경의 즉흥적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871473>). 인체에 개의 머리를 씌우거나 작품마다 하늘, 산, 동물이나 곤충 등의 자연물의 이미지 넣기, 만화, 상표와 문자 등을 이용해 거리와 자연 풍경들을 비현실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안토니오 데 파스칼의 작품<리얼타임(Real Time)>은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제과

업체가 생산한 스낵이나 과자류, 프링글스, 맥시봉, 코코팝스의 구겨진 포장봉지를 크게 확대해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포장지의 표면에는 본래의 세련된 이미지 대신 결코 그 내용물처럼 달콤하지 않은, 홍수나 테러와 같은 재앙의 현상이 그려져 있다. 작가는 코믹하면서도 긴장이 넘치는 메타포를 통해 프링글스의 얇은 조각들에서 사방으로 튀어 오른 자동차 폭발의 파편들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재앙들은 분명 그 달콤한 것들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글로벌 성장제일주의, 팽창주의 그 외에도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http://blog.naver.com/sopriceless/60042492115>).

4) 소비문화와 경제

팝아트는 처음부터 산업사회로 인한 소비문화를 주제로 다루어온 미술사조로서, 통속적이고 현실적인 오브제를 택하거나 대중에게 익숙한 상업적인 이미지를 차용해 콜라주·축적·확대·반복·복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시대의 현상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이 사용한 코카콜라 및 캠벨 수프 광고 이미지들은 실크스크린을 통해 수십 개로 반복 및 복제된 것이며, 브릴로 비누 상자와 하인즈 케첩 상자는 슈퍼마켓 창고에서처럼 쌓아 올려졌다.

이러한 차용과 반복, 복제는 기계를 통해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사회와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풍요로운 사회에서 다수(多數)로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60년대의 팝아트는 소비문화시대를 반영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현재 누보 팝아트 작품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립 위아르는 상징적인 단어와 이미지들의 합성으로 화려하고도 병든 시대에 관한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즉, <신 스트레스 건망증(God Stress Amnesia)>을 보면, 약국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캡슐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표정을 사실적인 광고이미지로 그려내어 소비문명을 고발한 것이다. 여기에 'absence'라는 단어가 같이 표현됨으로써 신경계를 조절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약물이라는 존재, 즉 순간적으로 편리하고 쾌락적인 행복을 주는 상품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안토니오 테 펠리페는 <보그 암소(Voca Vogue)>에서 수많은 고가의 패션상품들을 광고하고 있는 '보그'지를 이용하여 세계여성들을 유명 디자이너인 카롤리나 헤레라가 디자인한 스카프를 착용한 암소로 조롱함으로써 패션의 과도한 상업주의 및 물질만능, 소비문화에 대해 은유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였다.

세실리아 쿠바르는 작품에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기호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 <평가(Estimation)>는 화면 오른쪽에 검정 띠를 두른 스티커 위에 작은 활자로 ‘미술시장, 아트 딜러, 고객, 수집가, 미디어(The Art Market, Art Dealers, Clients, Collectors, The media)’라고 적혀 있고 그 검정 띠 안에는 두 신사의 굳은 악수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아트 딜러, 수집가, 고객과 미디어주체들 간의 은밀한 협력을 암시한 것이다. 화면 왼쪽에 패러디된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은 명품을 표현한 기호이며 화면의 최하단부에는 ‘요구에 따르는 평가(Estimate on Request)’라고 적혀있고, 그 오른쪽 옆에는 경매에서 ‘판매’를 의미하는 기호인 작은 빨간 점이 있다. 이 작품의 기호학적 메시지는 미술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곧 욕망과 공모에 의한 가치의 생성, 많이 팔리는 것이 곧바로 가치가 되는 이 시대의 넌센스를 요약하고 있다(<http://blog.naver.com/sopriceless/60042492115>).

5) 대중문화

오늘날 현대인은 광고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팝 아트가 발생한 1960년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대중들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기보다는 텔레비전과 잡지를 통해 대중 스톱 지나거나 각종 미디어와 컴퓨터를 통해 사건의 표피만 접하게 된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은 대중사회를 촉진시켰으며,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켜 대중들은 수동화, 획일화되고, 특히 매스미디어의 현실 도피적 내용으로 인해 감각이 상실되고 사회적 무관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21세기는 초고속 인터넷과 빠른 정보 전달 등으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혹은 정치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는 매체의 노출이 대중에게 급속히 전파되어 왜곡된 진실을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어느 때 보다 인간의 감성을 기계적으로 변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와 사건들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1960년대의 팝아트는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로 인해 원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누보 팝아트 작가들은 이런 대중문화의 ‘비개성’과 ‘맹목적인 수용’에 대한 현상과 그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안토니오 데 펠리페의 <코카콜라 소녀(Menina Coca Cola)>는 벨라스케스의 작품 <라스메니나스>를 패러디한 것으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린공주의 손에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코카콜라를 들려주었고 배경에는 코카콜라의 로고를 그려져 있

다. 또한 공주의 표정은 원작의 앳되고 순수한 표정이 아닌 과장된 붉은 뺨과 입술, 뇌쇄적인 눈빛으로 원작보다 성숙한 여인의 모습에 가깝다. 이는 마치 상품 광고 같아 보이며 예술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고급과 저급의 허물어지고 있는 경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안토니오 데 파스칼은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제과업체가 생산한 친숙한 과자류의 포장지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작가는 알록달록한 색상과 만화적인 캐릭터와 로고를 이용해 사람들이 폭발과 재해 등의 재앙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매일 접하는 장면처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풍자하고 있다.

윌리엄 스위트 러브의 <부츠를 신은 큰 슈нау저와 작은 슈нау저(grands et petits schnauser)>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진한 붉은색의 슈нау저 작품이다. 큰 슈нау저 한 마리가 앞을 향해 있고, 그 뒤에 작은 슈нау저 여러 마리가 큰 슈нау저의 뒤를 따라 서있다. 작은 슈нау저들은 두 앞발에 신발을 신고 있어 사람을 상징하고 있으며, 큰 슈нау저는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마스크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작은 슈нау저들은 마스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롱하기 위함이다.

필립 위아르의 <하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Heaven can't wait)> 역시 외모지상주의 사회문제로 인해 성형의 폐해, 대중매체에 의해 개성을 상실하고 획일적인 꿈을 키우는 아이들처럼, 문제시되고 있는 일반적 소재들을 특성화시켜 표현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사진을 찍은 듯 사실적인 그림으로, 마스크, 여성의 얼굴, 그 밑에 그려진 꽃과 탄산음료, 갈증을 느끼는 듯한 여성의 입을 통하여 성형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욕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6) 문화 상대주의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지역적 특색이 과거만큼이나 분명하지 않지만 문화가 복합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세계화 때문으로, 문화와 가치의 혼합 결과로 다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시대의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화상대주의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를 각각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을 이른다.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마다 다양하고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 특성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어 온 생활의 결과이며, 이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의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느 사회의 문화가 더 열등한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특정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누보 팝아트 작품 중에는 전통적인 서양문화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문화상대주의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이는 관점의 상대성을 긍정함으로써 문화제국주의를 극복하고자 함이다.

필립 위아르의 <드림#9(Dream #9)>는 미키마우스의 한쪽 눈 일부와 귀 일부 그리고 모자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end'라고 쓰여 있다. 미키마우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 혹은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문화 또는 미국 상품을 예찬하는 의식의 종말이 오기를 고대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 마누엘라는 <봄을 기다림(Waiting for Spring)>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일본여성들과 꽃들을 그렸다. 스웨덴 출신의 작가이지만 일본판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 대중만화 풍으로 여성들을 표현하였다.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 기타 스타일은 서구풍이고 배경은 불교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꽃문양으로, 서양인에게는 낯설지만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로 표현되었다. 이는 고전적 동양전통과 현대적 서양문화가 첨예하게 대비되는 여성 특성에 의미를 제공하여 동양여성들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 또는 동양과 서양문화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징의 의미 및 표현기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징

주 제	의 미	표현 기법	활약한 작가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성의 상품화 풍자 -인체의 미 표현 -여성으로서의 삶 예찬 -여성의 지위 향상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소외감, 절망 표현	-캔버스에 회화 -채도 높고 밝은 색상 및 강한 대비색상 이용 -인기스타, 만화영화 속 여주인공 이미지 차용 -패러디 -초현실, 아르 브뤼 기법	-샤오 판 -안토니오 데 펠리페 -니키 드 생팔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전쟁의 폭력성 풍자 -영웅들의 권력과 욕망 풍자 및 비판 -정치에 의한 비자금 문제 풍자	-캔버스에 회화 -역사 속 전쟁, 영웅, 마법사가 주요 소재 -만화이미지 -패러디 -벤데이 망점 -문자 및 레터링 -채도 높고 강렬한 색채 -타투기법, 아르 브뤼, 다다, 팝아트, 광고, 언더그라운드 문화, 캐리커처 등 다양한 기법의 혼합	-군더문더 에로 -로베르 콩바스 -안토니오 데 펠리페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자연파괴와 동물학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 풍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예찬	-캔버스에 회화 -조형작품 -콜라주 및 오브제 -점묘기법 -자연적 이미지 소재 취함 -반대되는 이미지 및 재료 이용 -만화, 상표, 문자 이용	-팀 뢰로프스 -크래킹 아트 그룹 -리우 밍
소비문화와 경제	-과도생산과 과도소비 문제점 비판 -과도한 상업주의 은유적 풍자	-캔버스에 회화 -사실적 묘사 -조형작품 -문자 -패러디 -광고, 상품 이미지 차용 -키치적 재료, 컬러 사용 -기호학적 상징	-필립 위아르 -윌리엄 스위트 러브 -안토니오 데 펠리페

대중문화	-개인의 개성과 취향의 획일화 풍자 -매스미디어에 의한 인간성 상실 비판 -고급문화, 엘리트주의 조롱	-캔버스에 회화 -조형작품 -사실적인 묘사 -강렬하고 밝은 색상 -패러디 -키치적 재료, 컬러 사용 -확대 표현	-윌리엄 스위트 러브 -안토니오 데 파스칼 -안토니오 데 펠리페 -필립 위아르
문화 사대주의	-서양문명의 우월주의 비판 -동양과 서양 문화의 조화	-캔버스에 회화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 이미지 표현 -비유적 의미 내포	-필립 위아르 -마리아 마누엘라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의 비교 · 분석 및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성을 고찰 및 분석을 근거로 누보 팝아트 이미지의 개념을 정립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현기법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의 자유구상회화(신구상주의회화), 신사실주의회화 및 팝아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팝아트의 실크스크린과 같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작가가 직접적으로 붓을 이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개성적 표현과 인간성 존중의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 등을 사실적인 묘사로 현실을 표현함으로써 작가는 물론 관람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참여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강렬하고 대비적인 색상, 풍자적이고 조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패러디 기법과 키치적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해 작가의 비판의식을 뚜렷하고 강력하게 전달한다. 또한 기호학적 상징이나, 비유적 의미의 소재선정 또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앞서 레스타니가 언급했듯이 60년대 팝아트처럼 단답형이 아닌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는 서술적인 표현의 회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기법을 이용해 작가의 의도를 비판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한 뚜렷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보 팝 이미지를 앞에서 고찰한 개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표 7> 누보 팝 이미지 개념

표 현 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 문자 -만화 및 스타이미지 -밝고 강렬한 색채 -콜라주 및 오브제 -패러디 -키치적 표현 -만화적 표현 -타투, 낙서 -퇴폐적, 유아적 표현 -회화적 표현 -자유로운 형식(다양한 표현기법 혼합) -초현실 -아르브뤼 -사실적 묘사(현실 반영) -기호학적 상징 의미 -비유적 의미 표현 	⇒	의 미 전 달	➔	주 제 의 식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소비문화와 경제
						대중문화
						문화 사대주의

Ⅲ.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코드화

1. 누보 팝아트와 패션과의 관계

미국인들이 대중사회의 비대한 정부와 비정한 면들, 월남전 및 성, 인종, 생활양식 등에 기인하는 구태의연한 인간 차별의 양상에 불안을 품게 되었고 생활자세, 인간 관계, 가치관,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허현진, 2002).

에네스틴 카터(Ernestine carter)는 그의 저서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에서 20세기 패션의 비평에 관해 1960년대를 혁명시대로 보고 이 혁명의 주된 영감을 팝아트, 팝 뮤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이인성, 1997). 해밀턴(Hamilton)은 팝아트의 특징에는 대중을 위해 디자인된 대중성(popularity)과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변이성(transience)이 있으며, 높은 소비성(expendability)과 저렴한 가격 형성(low cost), 재치와 유머가 있어 풍자적(witty), 그리고 대량 생산적(mass-produced)이고, 활력이 넘치는 청소년 문화(young)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히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한 에로티시즘(sexy)과 대량생산(mass-produced)에 의한 상품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즉, 팝아트는 대중이 애용하는 물품을 일정한 양식으로 도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과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승은, 김혜경, 2004). 이러한 특성과 실크스크린, 에로티시즘 이미지 표현, 레터링과 그래픽토, 콜라주 및 앳상블라주 기법으로 구성된 팝아트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일종으로서 1960년대 현대복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⁰⁾ 그 후에도 앤디워홀의 실크스크린 기법은 텍스타일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복고주의 경향은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각종 디자인을 비롯해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예로, 루이비통(Louis Vuitton),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모스키노(Moschino), 카스텔 바작(Castel bajac) 등을 비롯한 여러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에 의해 제작된 재미있는 디자인의 백을 선보였으며 그 외에도 크리스찬 디오르, 모스키노 등 많은 디자이너들은 대중적 이미지인 얼굴, 자동차, 만화, 레터링을 이용한 일상적 이미지의 오브제를 통하여 팝아트적인 요소를 유희적으로 응용하였다(김혜경, 2007).

이와 같은 팝 패션은 주로 문자, 만화, 친근한 캐릭터 및 대중스타 이미지 등을 차용하여왔다. 이는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주관적 중립성의 특징을 띄는

미국 팝아트 영향으로 디자이너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팝아트의 대중상표나 대중스타 등의 이미지를 직접적이며 유희적으로 패션에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는 마릴린 몬로 이미지를 스팅글과 비즈를 이용해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카스텔 바 작은 팝 스타일의 밝은 색상을 이용해 원피스 전체에 동물 이미지의 만화를 프린트하는 등 디자이너가 어떠한 비판의식이나 주제의식을 표현하였다기보다는 무늬나 패턴 등 장식적인 의미로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끔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경고나 비판의식 등을 내포하는 문자나 색상을 이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유행을 하기도 한다. 그 예로, 미국인들은 2001년 뉴욕의 테러사건 이후 슬픔과 애도 등의 표현으로 한동안 성조기를 티셔츠, 스카프 등에 프린트하여 입고 다녔고, 벨기에 디자이너 마르탱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는 2007년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을 위해 기본 브이넥 티셔츠의 넥 라인을 중심으로 문장을 프린트하여 유머가 가미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조르지오 알마니(Giorgio Armani)는 'Red'라는 글로벌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여 'red'색상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캠페인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점차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환경운동 및 반전 등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고, 패션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혹은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패션에 표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도나텔로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는 2008 F/W 컬렉션에서 자연환경 또는 자연과 인간관계의 주제를 다룬 팀 뢰로프스의 콜라주 작품을 드레스의 무늬로 사용하여 주목을 받았다. 드레스 무늬는 뢰로프스 작품 이미지들로 밝고 채도 높은 색상의 드레스에 <그림 6>, <그림 7>와 같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베를린 도시 및 전쟁으로 파괴된 예술가촌인 타헬레스와 거리 풍경, 과거 역사적인 사건 및 과거 자연환경에 대한 그리움이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뢰로프스는 인간의 몸에 개의 머리를 씌우는 등 풍자적인 요소로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폴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알카디어스(Arkadius)는 2002년 S/S컬렉션에서 여성의 드레스에 수술 도구 이미지의 프린트 및 아기사진의 콜라주, 인형을 부착하여 표현함으로써 피임이나 낙태 등 여성 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빅터 앤 롤프 (Victor & Rolf)는 2008 F/W컬렉션에서 여성의 셔츠나 드레스의 가슴과 얼굴부위 등에 'No' 라는 그래피티를 표현함으로써 유행과 편리함을 쫓는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루이비통은 2008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미국의 예술가 겸 사진작가인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¹¹⁾와 함께 작업한 <그림 8> ‘농담 시리즈’의 핸드백을 발표하였다. 즉, 리차드 프린스의 유명한 작품 시리즈인 ‘간호원’ 페인팅을 연상시키듯 컬렉션 처음에 등장한 나오미 캠벨을 비롯한 유명 모델들이 ‘LOUIS VUITTON’의 알파벳이 새겨진 간호원 복장을 하고 ‘농담시리즈’의 핸드백을 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림 8>은 프린스가 제작한 핸드백에 적혀있는 농담들은 미국 중산층의 기이한 관념(섹슈얼리티, 죽음, 인종)에 관해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림 9>의 모델들의 간호사 복장은 프린스의 ‘간호사 시리즈’ 작품 <그림 10>, <그림 11>의 친절함과는 정반대인 싸늘하고 도발적인 간호사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요약하여 보면, 뢰로프스의 풍자적인 요소가 담긴 콜라주 기법의 이미지들을 베르사체가 밝고 채도 높은 색상의 드레스 위에 패턴으로 표현한 것, 알카디어스가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여성의 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 빅터 앤 롤프가 문자를 이용해 현대의 소비문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과 루이비통이 팝아트 작가의 조롱적이고 풍자적인 농담을 핸드백에 옮겨놓은 것 등을 살펴보면 팝아트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팝아트와는 다른 차원에서 현대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유럽의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유럽의 문화적인 영향을 비롯해 2000년 이후부터 부각되고 있는 누보 팝아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사려되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는 주로 유럽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이너의 주제의식을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비판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에서도 누보 팝아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은 유럽이외의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6> 타헬레스 풍경 사진
 (<http://super.tacheles.de/c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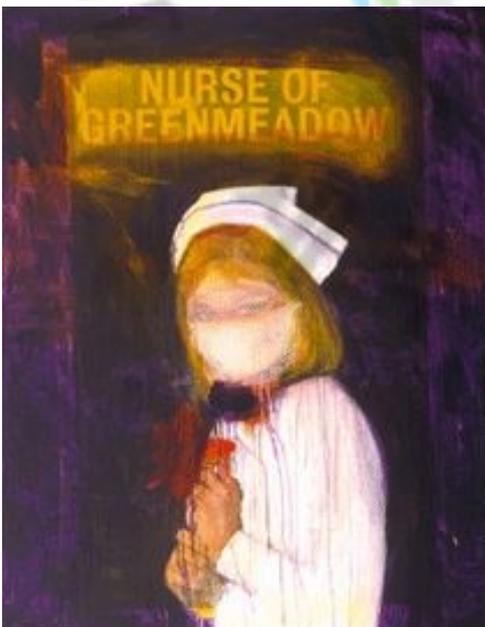
<그림 7> 타헬레스 풍경 사진
 (<http://super.tacheles.de/c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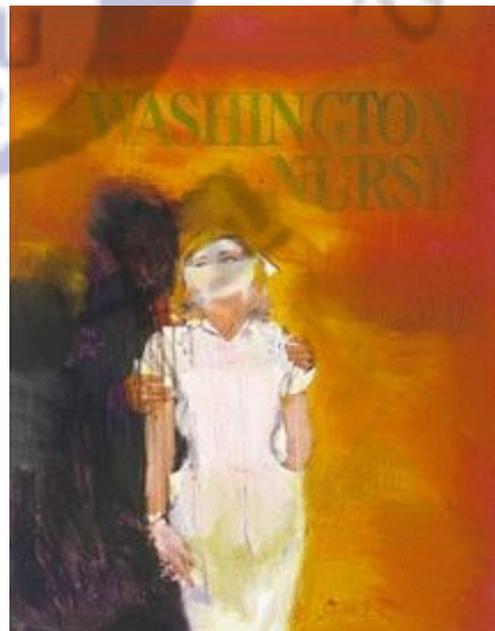
<그림 8> 2008 S/S Louis vuitton
 'Joke Bag'



<그림 9> 2008 S/S Louis vuitton



<그림 10> 2002 Richard Prince
 'Nurse of Greenmeadow'



<그림 11> 2002 Richard Prince
 'Washington Nurse'

2. 누보 팝아트의 주제별 특성 코드화

1)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는 펠리페의 종속적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샤오판의 인간 형체의 미와 아름다운 에로스의 당당한 표현, 니키 드 생팔의 여성으로의 삶에 대한 예찬과 당당함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누보 팝 이미지는 과거 여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의 해방성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안 코르노는 여장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성 이미지를 통해 남자와 여자라는 성정체성이 남자속의 여자, 여자속의 남자라는 내적 갈등으로 해체된 성의 해체성이 표현되었다. 따라서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의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으로 코드화 하였다.

(1) 성의 해방성

성의 해방성이란 남성의 가부장적인 권력에서 여성의 종속적인 상황이 벗어남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해방운동은 페미니즘운동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봉건사회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도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시작으로 가정 안에서의 남성들의 억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여성해방운동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을 기초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지만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초래되어 결국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여성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저항운동에서 시작되었고, 1970 ~ 198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이후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생존권 및 평등권의 주장보다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입장이 곳곳에 두루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여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하려면 가정 역할과 관련된 자녀출산, 자녀양육, 성 관계, 그리고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직업적 역할 등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영경, 1995).

특히 미국작가이자 행동주의자인 밀레트 케이트(Millett Kate)는 『성의 정치학 : Sexual Politics(1970)』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부권제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기질,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서 ‘성의 혁명’¹²⁾을 주장하였다. 즉,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문화의

지향으로부터 남성문화를 여성문화로 대치시키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여성들을 여성성의 틀 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였다(손미희, 1997).

(2)성의 해체성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사회는 총체적 세계관과 위계질서의 거부, 합리적 이성에 대한 거부, 소외되어 왔던 타자의 부상, 다원주의, 절충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자아와 주관성의 해체, 패러디와 패티쉬의 긍정적인 사용, 행위와 참여의 중시, 임의성과 우연성의 강조, 주변적인 것의 부상, 탈 장르화 혹은 장르의 확산, 외부현실의 반영보다는 자기 반성을 우선시한다. 여기에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자아의 해체와 주변적인 것, 타자의 부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타자성에 여성을 대응시켰다는 점이다(이영재, 1998).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인 여성의 고정된 의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해체론으로 극복하였다. 해체란 형이상학적 철학이 표상적 경향의 진 존재성을 말살해 버리는 순간들을 재 포착하려는 재조사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체주의는 기호의 고정적 의미를 해체하고 열린 세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열린 세계란 궁극적으로 자율, 자유가 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말한다(이영재, 1998).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무효화하고 이분법의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정현숙, 1997). 또한 프로이트(Freud)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양성(bisexuality)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자웅동체는 완벽한 인격의 상징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양성의 성향을 띤 ‘양성애자’ 및 같은 성에 애착을 느끼고 이성으로 느끼는 ‘게이’와 ‘레즈비언’, 남성이면서 여성으로 여성이면서 남성으로 성 전환한 ‘트랜스젠더’는 이미 국 · 내외적으로 친숙한 단어가 되었으며, 사회는 그들의 존재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소외되어 왔던 이러한 집단들은 인권을 요구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 트랜스젠더의 법적인 성 전환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성은 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여러 단계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의 해체성 문제는 점차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안 코르노도 소외되어온 이들의 고통과 불안함 등이 시대의 소수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미술이나 디자인분야에서도 성의 해체성의 코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2)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로베르 콩바스는 주로 유럽의 역사 속에서 과거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 전쟁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 외의 최신 작품들을 살펴보면, 탱크와 부상당한 사람 등의 표현으로 현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일상과 산업사회로 변해가는 유럽국가의 이미지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등의 주제를 역사의 재현성으로 코드화 하였다. 또한 군더문더 에로의 작품에서는 만화 속의 영웅이나 마법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권력의 과시성으로 코드화 하였다.

(1) 역사의 재현성

재현성은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과거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응용 · 절충 · 복합시킨 표현 특성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김윤주, 1998).

따라서 자유구상주의 영향을 받은 로베르 콩바스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미국의 이성주의를 배제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작가의 욕구대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작가가 유럽문화와 정체성 및 역사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로베르 콩바스는 영웅화된 전쟁이나 인물을 모델로 과거와 상상의 세계를 재구성하여 신화와 유사하게 표현함으로써 재현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건 혹은 신화와 전설 등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패러디 및 차용을 통해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정치를 비롯한 전쟁 등 역사적 사건과 인간을 탐구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권력의 과시성

‘과시’라는 단어는 ‘자랑하여 보임’이나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뜻으로(다음 국어사전), 군더문더 에로의 작품<Magic space>에 권력의 과시성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각종 만화와 영화 속에 등장한 마법사나 영웅, 거인이나 괴물 등의 존재들을 화면 가득 메움으로써 서로 간의 힘과 능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과시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만화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권력의 과시성을 코믹하게 풍자하여 누보 팝아트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과

시는 단지 작품 안에서의 표현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독재적인 인물이나 영웅의 등장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외 폭력으로 나타나며,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현대의 권력구조의 상황까지도 암시함을 알 수 있다.

3)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을 주제로 다룬 누보 팝아트 작가들은 현대 산업사회가 도래되면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정신에도 해악을 미치고 있음을 사실적인 묘사 및 설치미술을 통해 강한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환경파괴의 경고성으로 코드화하였다.

- 환경파괴의 경고성

현대 전 세계의 자연환경은 인구폭발, 빈곤, 공기오염, 삼림의 소멸, 지구 온난화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인류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파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위기현상의 경고¹³⁾ 차원에서의 범지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크래킹 아트 그룹과 팀 뢰로프스를 비롯한 누보 팝아트 작가들은 경고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누보 팝아트 작가들은 형광색의 동물모형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환경파괴의 처참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 및 확대함으로써 보는 이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자연 파괴의 주범인 현대인이 되돌려 받게 될 책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비문화와 경제

안토니오 데 펠리페의 작품 <보그 암소>는 여성들의 과도한 유행선호에 대한 풍자와 함께 잡지 등과 더불어 매스미디어의 과도한 광고와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소비욕구를 풍자한 작품이다. 그리고 위아르의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는 캡슐 약품의 이미지로 현대의 소비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 등을 통해 소비문화와 경제에 대한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충동적 소비성으로 코드화하였다. 그리고 세실리아 쿠바르는 예술작품의 순수한 미적가치보다는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미술

시장의 체제를 기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주제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영리성으로 코드화하였다.

(1) 충동적 소비성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과학기술 문명을 바탕으로 소비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재의 의미를 문화적 범주, 원리로 사용하고, 또한 사고로 활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창조, 유지하는 자아개념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간다.

따라서 소비란 그 특성에 있어서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형성의 주된 구성요인으로서의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백경미, 1998). 이러한 소비문화는 최근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한 광고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과소비를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한 비합리적 소비로 개인 또는 국가적 경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중소비사회에서 제품의 수요 창출 기능을 하고 있는 광고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전체의 소비문화와 생활양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생산, 대량 판매, 대량소비를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위해서 소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상품미학은 바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기재로서 기능하며 광고는 그것을 확대재생산한다(강명구, 1995). 따라서 최근 인터넷, TV와 잡지 등 매스미디어의 광고는 소비촉진을 위해 자극적인 문자나 멘트를 이용하여 충동적인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토니오 데 펠리페도 그의 작품에서 유행을 쫓는 여성들을 암소로 비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그 잡지의 이미지와 광고 문구를 차용 및 패러디함으로써 광고에 의한 충동적인 소비성에 대해 비판 및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위아르의 작품 <신 스트레스 건망증>은 순간적이고 편리한 약품에 의존하는 인간들의 쾌락적인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는 약품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등의 통신기구 및 초고속 인터넷, 운송수단의 발달 등등 대량생산으로 쏟아지는 상품들과 넓게는 현대 기술문명, 즉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가는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2) 자본주의 영리성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며(네이버 백과사전) 영리성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영리성이란 자본 체제에서의 이윤 추구를 중시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 경제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였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확립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시장경제란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경쟁하여 우수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 공급, 분배, 소비해야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코카콜라,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거대기업들이 탄생하여 그들의 자본과 힘으로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을 지향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야하는 뉴스를 비롯한 대중매체도 이러한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진실을 왜곡하기도하고 경제적 조직, 즉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 또는 인간의 존엄성 등 도덕성을 무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5) 대중문화

윌리엄 스윙트 러브와 필립 위아르의 작품을 분석하여 보면, 유행과 고정화된 미를 추종하는 대중, 즉, 여성의 욕망을 다룬 대중문화에 대한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물개성성으로 유추하였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장면을 확대하여 사건, 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의 사고를 환기시키려는 안토니오 데 파스칼의 작품에 관한 주제를 본 연구에서는 무감각성이라 코드화하였다.

(1) 물개성성

물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의 뜻을 가진 ‘개성’이라는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로서 현대 대중문화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은 스타나 대중적인 인물의 패션을 자주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흠모하게 된다. 이를 추종하는 대중들은 시간과 지역적인 제한이 없이 쉽고 빠르게 유행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유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비개성적인 특성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누보 팝아트의 작가인 윌리엄 스워드 러브도 작품<부츠를 신은 큰 슈나우저와 작은 슈나우저>에서 슈나우저들의 조형작품을 설치하여 유행을 선두하는 트렌드 세터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중들의 모습을 풍자 및 비판하였다.

필립 위아르는 작품<하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에서 현대 여성들의 과도한 성형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위아르는 과학과 예술의 발달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성형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겉모습은 고정화된 미인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써 개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성형에 대한 끝없는 욕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2) 무감각성

무감각이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며 현대인의 성향이라 할 수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현상은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에 현대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로부터 점차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무감각적 현상은 삶에 대한 무기력한 시선으로 감정, 열정도 없이 마치 진공 상자 속에서의 막막함과 같은 상태를 뜻하며 작품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심리상태를 가리킨다(박상희, 2006).

기술과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찾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하여 인간의 감정적 풍요를 상실시켰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범람한 충격적 사건과 사고의 장면을 매일같이 시청함으로써 더욱 더 삶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삶에 의미를 잃어갔으며 이웃과 사회문제에 점차 무관심, 무감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띄게 되고 이는 곧 외로움, 고독, 소외감 및 상실감으로 감성과 정신이 병들게 된 것이다.

안토니오 데 파스칼은 그의 작품에서 유명한 과자포장지나 케이스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홍수와 같은 재해와 대형 사고들을 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만화적인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무감각적 현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작품을 확대시킴으로써 무감각적 사고를 환기시켜 진중히 바라보게끔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6) 문화 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란 ‘인류 문화는 일원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태도나 관점’을 말한다(다음 국어사전). 이는 넓게는 포스트모던의 특징인 다문화주의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누보 팝아트 작가들에 의해서 미국 또는 서양문화의 우위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문화성이라 코드화하였다.

• 다문화성

다문화성이란 글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키며 지배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모더니즘 하에서는 근대화라는 것이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대화 이론이 서구사회 문화를 근대적인 것이라 표현함으로써, 제3세계 문화는 전통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최혜정, 1999).

누보 팝아트 작가인 마리아 마누엘라는 작품<봄을 기다림>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일본 판화기법의 영향을 받아 동양여성들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동서양의 문화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누엘라는 동양적인 작품의 표현기법과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동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화를 민족이나 국가적인 지역의 경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필립 위아르는 작품<드림#9>에서 미국을 예찬하는 의식을 비판하였다. 위아르는 미국 문명과 소비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환상 또는 의식을 비판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비판한 것을 보면 이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연계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누보 팝아트의 주제들 중에서 누보 팝 이미지 패션에 표출된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 권력의 과시성, 환경과피의 경고성,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 등의 코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패션에서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을 선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V.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분석

1.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1) 성의 해방성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의상을 호색적이고 추잡함을 제공하는 여성노예의 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상만이 순수한 여성다움을 유지하면서 노예의 신분(속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건강과 생기를 유지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페미니스트들은 의상개혁 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은 여성이 남성적 이미지의 의상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해방운동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을 버리고 테일러드슈트와 팬츠를 입음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히려 남성 중심적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하는 동기가 되었고, 남성의 우월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모순을 깨닫게 된 여성들은 80년대 이후 형식에 얽매어 있고 획일적인 테일러드슈트를 벗는 대신 인체를 드러내고 감성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한 패션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패션 특징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인 억압이었다면, 최근 여성들의 신체적 강조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손미희, 1997). 한 예로 1960 ~ 1970년대 여성복에 남성화를 강조한 유니섹스 개념이 현대패션에 나타나게 되어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주었고, 최근에도 베스트와 슈트 등의 남성적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이 남성화되는 스타일이 유행의 모드로 존재되어 있다. 또한 노출패션, 속옷의 겉옷화 뿐만 아니라 남성복에도 러플장식과 화려한 색상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보아 성의 정체성이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패션은 크게 남성적 이미지의 스타일과 그 반대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 또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향이 바로 성의 해방성이 표출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2>, <그림 13>은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2008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발렌시아가의 독자적인 건축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남성적인 어깨와 여성스러움의 엉덩이가 동시에 구조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높은 채도의 밝은 색상의 수채화나 유화를 이용한 회화적 기법으로 여성적인 플로럴 패턴을 이용한 점, 그리고 남성적인 글레디에이터 부츠 등에서 성의 해방성이 표현되었음을 유추하였다.

또한 원피스의 실루엣과 부츠가 <그림 14>,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만화영화 속의 여전사 이미지를 차용한 강한 여성상으로 여성의 당당함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보 팝적인 요소인 만화영화 속 여주인공 이미지의 차용 및 누보 팝아트의 회화적 표현을 분석·해석한 결과,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성의 해방성 코드에 접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는 현대의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의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난 다양한 현대 여성들을 테마를 다룬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림 16>, <그림 17>은 크리스찬 디오르의 2001년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키치적 표현을 콜라주기법 및 다양한 표현기법이 혼합된 자유로운 형식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이 표현된 것이다. <그림 16>은 아기를 안은 어머니의 드레스에 화장품과 우유 젖병 등 어머니이면서 직장여성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자수기법은 물론 채색을 이용한 유아적 회화 표현으로 구성되었고, <그림 17>은 아기에게 필요한 인형과 장난감 등 놀이기구가 팝아트 패션 기법중의 하나인 패치워크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어머니이면서 직장여성으로서의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생활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현대여성들의 사회진출, 능력 및 지위가 반영되어 사회적 자아실현은 물론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만 하는 현대 여성들의 현실적 고충이 풍자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그만큼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암시해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수기법 및 채색을 이용한 회화적인 표현기법, 팝아트 패션 기법인 패치워크 기법, 인형과 안경의 오브제 사용, 일상적 소재 이용 등은 누보 팝적인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기법의 활용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여성들의 역할과 삶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성의 해방성 코드로 접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8>은 폴란드 디자이너인 알카디우스(Arkadius)가 ‘출산’과 ‘탄생’에 대한 테마를 다룬 2002년 s/s 컬렉션 작품이다. <그림18>의 모델은 타이트하면서 가슴이 노출된 섹시한 티셔츠와 함께 수많은 아기 이미지가 프린트 된 헐렁한 팬츠를 착용하였다. 모델의 가슴 중앙에는 아기사진이 부착되었으며 팬츠의 옆선에는 수술도구의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묘사됨으로써 현대 여성이 갖는 출산이라는 문제를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진을 이용한 콜라주, 사실적으로 표현된 수술도구, 아기 이미지의 프린트기법과 밝고 채도 높은 팝 스타일의 핑크색상의 사용과 핑크와 블랙의 대비적인 색상표현은 누보 팝적인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여성들의 피임과 낙태수술 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대여성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포된 것을 보아 누

보 팝 이미지패션의 성의 해방성 코드에 접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은 특셀 미라스(Txell Miras)의 2006년 F/W 컬렉션의 작품이다. 모델의 가슴부위에 마치 X-ray 영상 이미지와 유사한 여성 가슴 노출영상을 콜라주한 작품으로, 여성성의 대표적인 상징부위인 가슴의 영상을 오브제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였다. 따라서 누보 팝적 표현기법인 콜라주와 오브제를 이용하여 현대 여성들의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것에서 성의 해방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보 팝적 요소가 함축된 성의 해방성 코드의 스타일은 주로 여성성이 강화된 실루엣은 물론 인체 대상을 자신 있게 노출하거나 과장함으로써 과거 여성들의 모습인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난 현대여성의 당당하고 강한 삶과 모습을 누보 팝 이미지의 표현기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성의 해체성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들이 혼용되거나 해체 또는 재구성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로서 여성 혹은 남성 안에 억압되어 있던 이성의 성을 인식하고 패션에서 소외되어있던 요소들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게 되었다. 한 예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해체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복식은 남녀의 성 해방을 강조하면서 남녀의 성 이분법을 해체한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 남성 혹은 여성의 특징이 배제된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을 말한다(김주영, 양숙희, 1998). 여기에서 양성적 이미지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돈된 경우의 개념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성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표현된 것으로 인체에서 성이 사라지고 복식의 조형성을 강조한 조형적 이미지만으로 표현된 스타일을 말한다(임수정, 2003).

LE TARTARUGHE의 수잔나 리오(Susanna Iio)는 2005 F/W컬렉션 테마 'X=Y'에서 'X'와 'Y'는 각각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였다. <그림 22>,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가 혼합된 스타일로, 점차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림 22>는 대표적인 여성적인 이미지인 스커트나 원피스의 착용과 더불어 얼굴에 남성얼굴의 사진을 부착한 박스를 씌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혼용되어 표현되었다. 콜라주기법으로 박스 겉면에 사진을 부착한 입체 박스의 착용은 일종의 오브제의 설치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의 구분이 모호

해지는 사회현상에 대한 주제를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3>은 남성 모델이 여성과 남성의 얼굴들이 사실적으로 프린트된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위에 레드색상의 롱스커트 형식으로 레이어드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여성성의 상징인 스커트를 남성이 착용함으로써 옷차림에 대한 남녀의 구분에는 이미 의미가 없음을 표현하였고,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된 양성적인 스타일이 표현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잔나 리오는 누보 팝아트 표현기법인 콜라주 및 프린트를 이용한 사실적인 이미지의 활용, 오브제 또는 설치미술의 형식을 활용하여 누보 팝 이미지의 스타일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의 해방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하였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은 폼프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06년 F/W컬렉션 작품이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은 남성적 이미지의 슈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여성적 이미지의 점무늬 원피스를 중첩하였고, <그림 27>은 착용한 드레스 위에 남성적 이미지의 슈트를 중첩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또한 모델들의 헤어스타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쪽은 리본이나 꽃이 장식된 여성적인 이미지이고, 다른 반쪽은 짧게 컷트 된 남성적인 이미지가 표현된 것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의 혼합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폼프 데 가르송이 중첩한 표현기법은 누보 팝아트 작가인 실비 파주프로우스카가 캔버스 위에 비닐로 만든 옷을 부착한 오브제 기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브제기법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이분법을 해체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내포된 것에서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성의 해체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 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보 팝 요소가 내포된 성의 해체성은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가 혼재된 스타일로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표현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림 12> 성의 해방성
(Balenciaga, 08S/S)



<그림 13> 성의 해방성
(Balenciaga, 08S/S)



<그림 14> 일본만화 ‘마법소녀 리나’의
여전사 이미지



<그림 15> 일본만화 ‘마법전사 스위트
나이트’의 여전사이미지



<그림 16> 성의 해방성
(Christian Dior, 01 S/S)



<그림 17> 성의 해방성
(Christian Dior, 01 S/S)



<그림 18> 성의 해방성
(Arkadius, 02 S/S)



<그림 19> 성의 해방성
(TXELL MIRAS, 06 F/W)



<그림 20> 성의 해방성
(TXELL MIRAS, 06 F/W)



<그림 21> 성의 해방성
(TXELL MIRAS, 06 F/W)



<그림 22> 성의 해체성
(LE TARTARUGHE, 05 F/W)



<그림 23> 성의 해체성
(LE TARTARUGHE, 05 F/W)



<그림 24> 성의 해체성
(Comme des Garcons, 06 F/W)



<그림 25> 성의 해체성
(Comme des Garcons, 06 F/W)



<그림 26> 성의 해체성
(Comme des Garcons, 06 F/W)



<그림 27> 성의 해체성
(Comme des Garcons, 06 F/W)

2.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1) 권력의 과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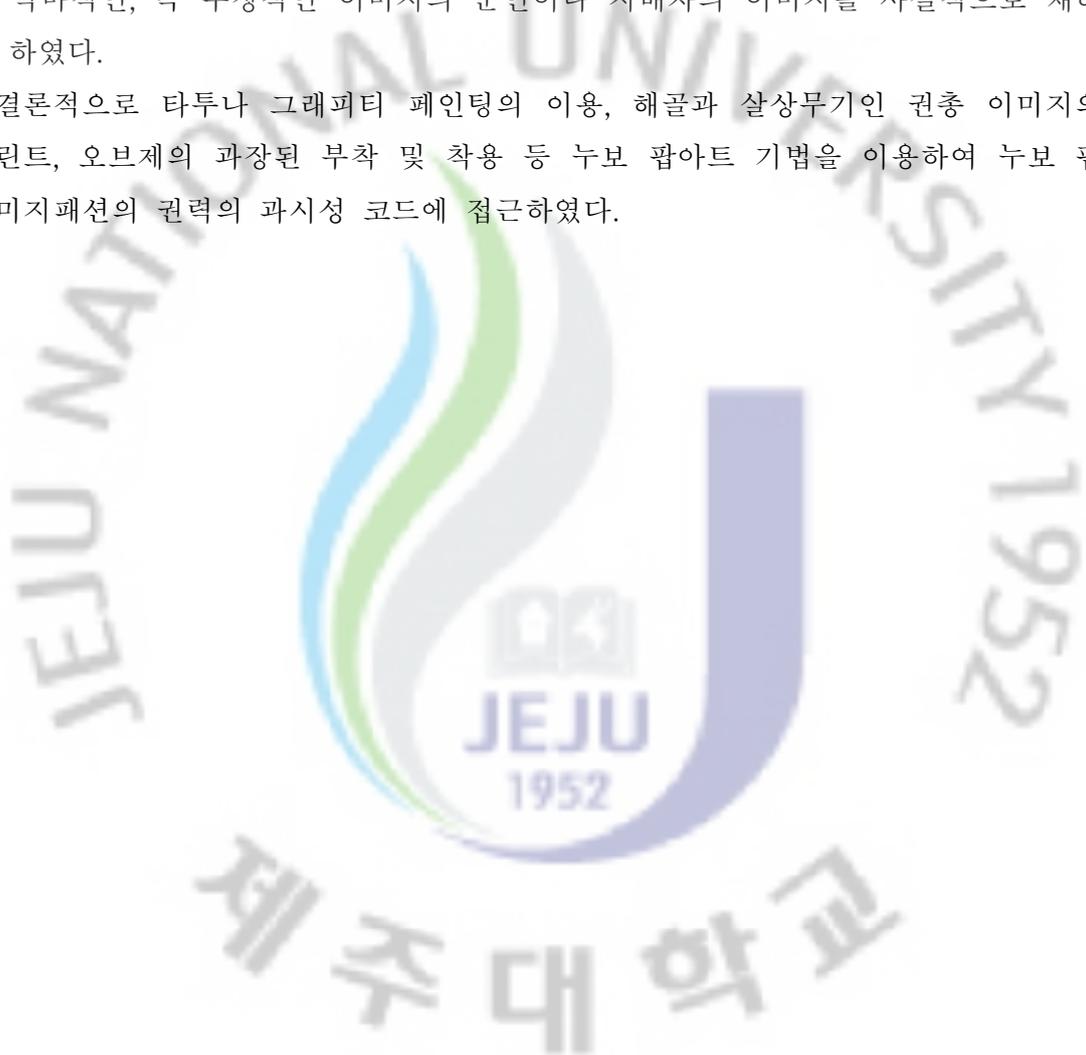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권력다툼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대립과 쿠데타, 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으로 집단이나 조직을 이끌고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지배층이 생기며, 이들은 전쟁의 승리나 경제 혹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의 힘과 권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과시한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8년 S/S 컬렉션에서 전쟁을 테마로 전사 또는 군인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현대적 혹은 미래적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 갈리아노는 컬렉션에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설치하여 전쟁의 급박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남자 모델들의 신체에는 요란한 색상의 페인트로 그래피티 기법을 이용하여 혐오감을 나타냈으며, 흙과 먼지투성이의 분장과 광기어린 듯 한 과장된 비인간적인 메이크업은 전쟁의 폭력적이고 처참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에서는 모델들이 벨트가 부착된 블랙 가죽 재킷과 베레모 및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전쟁 상황의 차갑고 권위적인 군인 이미지는 물론 두건과 망으로 얼굴을 가리고 재킷을 풀어 헤침으로써 반항적인 무법자의 이미지도 표현하였다. 또한 팬츠에는 팬츠 색상과는 대비색상으로 사실적인 느낌의 권총 이미지가 프린트 되어 군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연상시키게 한다. <그림 31>은 비행기나 헬기의 기계와 부품, 낙하산 등의 오브제를 몸에 부착시킴으로써 공군 헬기 조종사를 연상시킨다. 과기적이고 광기어린 듯한 퇴폐적인 메이크업과 핑크족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메탈장식의 가죽 팔찌와 머리장식 등의 액세서리와 가죽 부츠, 과장된 성기보호대를 표현함으로써 혐오감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또한 힘과 폭력성을 과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 <그림 33>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얼굴을 비롯한 인체에 타투 메이크업을 한 군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타투는 전사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타투 문양을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자유구상주의의 기법 또는 자유구상주의 영향을 받은 누보 팝 풍의 작가인 로베르트 콕바스의 타투 페인팅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으로, 군인들의 힘과 용맹함을 혐오스럽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과시하는 요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33>은 허리 벨트가 달린 올리브 그린 색상의 팬츠와 낙하산을 연상시키는 벨트를 부착된 것에

서 밀리터리 룩의 이미지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폐적이고 혐오스러움이 과장된 메이크업과 타투 및 죽음 또는 악마를 상징하는 해골문양이 프린트 된 티셔츠, 반항적인 모델의 표정 등에서 전쟁으로 인한 괴팍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군인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는 전쟁으로 인한 폭력적인 집단이나 단체 또는 군인의 복장이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패러디하여 혐오스럽고 악마적인, 즉 부정적인 이미지의 군인이나 지배자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타투나 그래피티 페인팅의 이용, 해골과 살상무기인 권총 이미지의 프린트, 오브제의 과장된 부착 및 착용 등 누보 팝아트 기법을 이용하여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권력의 과시성 코드에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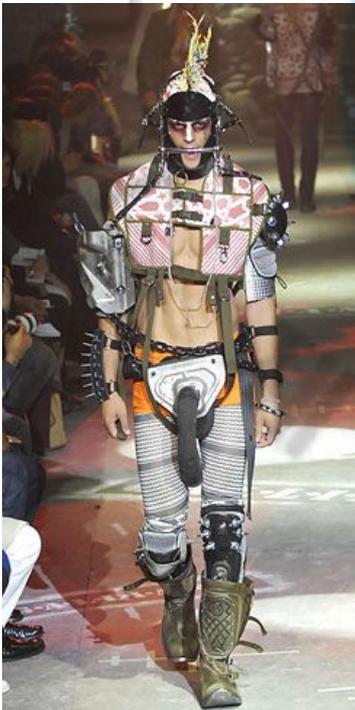
<그림 28>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그림 29>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그림 30>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그림 31>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그림 32>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그림 33> 권력의 과시성
(John Galliano 08 S/S)

3.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1) 환경파괴의 경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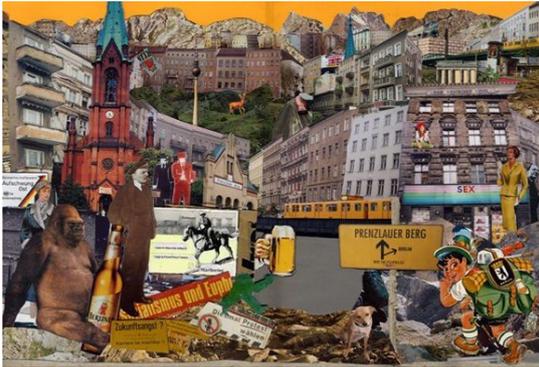
1990년 이후 디자인의 가치와 발전 방향의 중요한 흐름에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주도적인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온 환경문제가 패션계에서도 그 심각성을 테마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는 모피 패션주간의 PETA(동물 윤리조약)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디자인에는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왔다. 또한 뉴욕의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와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 등은 의류와 가방 등의 재활용을 이용한 패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버려진 옷과 패브릭을 리폼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현대소비문화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리사이클링 패션으로 순화시켰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패션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지아니 베르사체의 디자이너 도나텔로 베르사체가 2008 F/W 밀라노컬렉션에서 누보 팝 경향의 작가인 네덜란드 출신의 팀 뢰로프스의 작품을 드레스 무늬로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목받았다. 팀 뢰로프스는 베를린 중앙지역에 있는 예술가촌인 타헬레스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로서 사진과 광고 이미지 등을 콜라주 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베르사체의 드레스의 패턴으로 사용된 뢰로프스의 작품들은 대부분 작품의 소재인 베를린 거리, 건물과 사람들 등의 거리 풍경에 대한 즉흥적 인상뿐만 아니라 인체에 개의 머리를 씌워 이런 풍경들을 비현실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된 것들이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변해가는 환경, 과거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자연에 대한 회상, 그리움 외에도 자동차와 고층건물로 가득 찬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는 도나텔로 베르사체가 뢰로프스의 콜라주 기법으로 환경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누보 팝 이미지를 차용하여 밝은 핑크 및 옐로우의 채도가 높은 드레스 위에 패턴으로 프린트된 것으로 보아 누보 팝적 이미지패션의 환경의 경고성 코드에 접근하였다.

제레미 스콧(Jeremy Scott)은 2008 S/S 컬렉션을 위해 공사판과 쓰레기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제레미 스콧은 미국 패션디자이너로 현대사회 현상이나 문화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에

서 볼 수 있듯이 모델들은 도로 표지판이나 타이어 자국, 고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파이프 등 현대도시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필수 생활도구이지만 폐기물이 되어버린 이미지가 프린트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또한 입체화된 쓰레기통 모형의 오브제 의상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맨홀뚜껑을 쓰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며, 얼굴과 몸에 의도적으로 지저분한 먼지나 때가 묻은 듯한 메이크업 표현을 통해 도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보 팝적 요소인 일상적인 도시 이미지의 차용과 오브제 기법, 입체적인 쓰레기통 모형의 유머러스한 의상과 함께 지저분한 메이크업을 더하여 풍자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환경의 경고성 코드에 접근하였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도 2007년 F/W 컬렉션에서 자연문제에 관한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우려, 현재와 미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환경에 대한 테마를 설정하여 자연의 변화에 의한 하모니를 표현하였다. <그림 47>는 전기로 움직이는 망이 날씨에 의해 반응하는 후드 코트로, 미래의 공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우려하여 디자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기술이 첨가된 오브제의 이용 및 강한 대비를 이루는 컬러풀한 색채 등 누보 팝적인 표현기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환경의 경고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4>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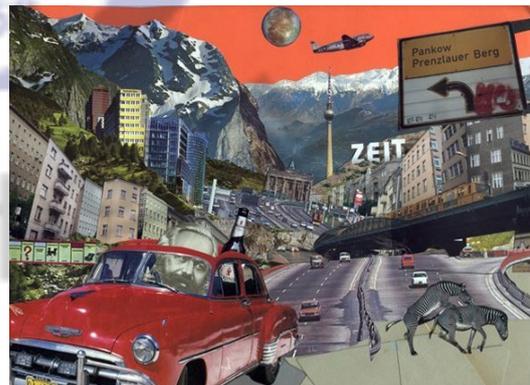
<그림 35>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그림 36>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그림 37>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그림 38> Gianni Versace 드레스에 표현된 팀 뢰로프스의 작품 이미지



<그림 39> 환경의 경고성
(Gianni Versace, 08 F/W)



<그림 40> 환경의 경고성
(Gianni Versace, 08 F/W)



<그림 41> 환경의 경고성
(Gianni Versace, 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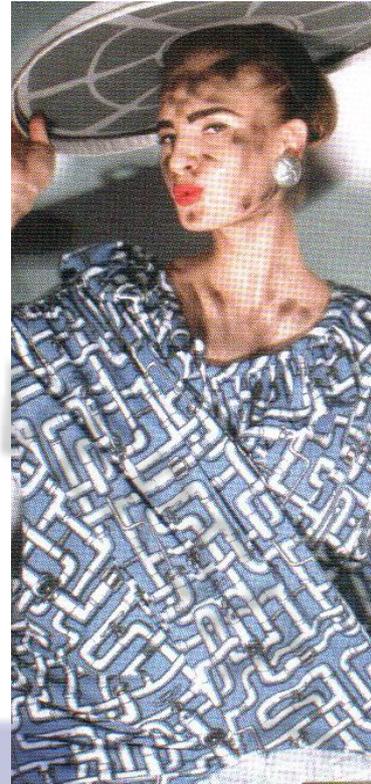
<그림 42> 환경의 경고성
(Gianni Versace, 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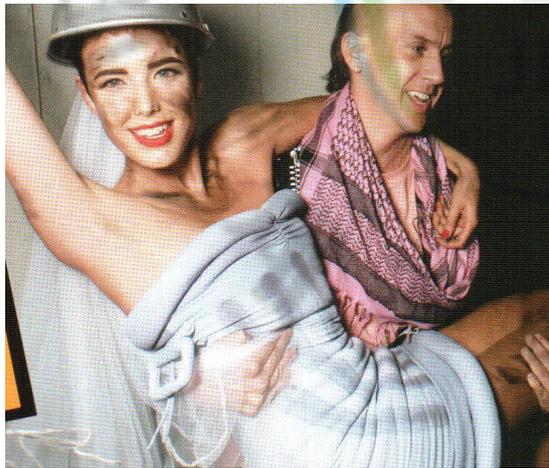
<그림 43> 환경의 경고성
(JEREMY SCOTT, 08 S/S)



<그림 44> 환경의 경고성
(JEREMY SCOTT, 08 S/S)



<그림 45> 환경의 경고성
(JEREMY SCOTT, 08 S/S)



<그림 46> 환경의 경고성
(JEREMY SCOTT, 08 S/S)



<그림 47> 환경의 경고성
(Hussein Chalayan, 07 F/W)

4. 소비문화와 경제

1) 충동적 소비성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TV, 인터넷과 잡지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품의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매체의 신속함, 제조업의 발달과 소비자의 고소득 수준으로 인해 각종 상품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과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패스트푸드(Fast Food)’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¹⁴⁾과 같은 스피드의 편리함을 제공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은 이내 곧 충동적인 소비문화를 즐기게 된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거대기업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상품과 인터넷 쇼핑 등의 쏟아지는 광고와 홍보마케팅도 충동적인 소비를 일으켜 과소비의 문제를 파생시킨다.

<그림 48>, <그림 49>, <그림 50>, <그림 51>, <그림 52>는 네덜란드 출신의 전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빅터 앤 롤프(Victor&Rolf)의 2008년 F/W 컬렉션의 작품들로, ‘No’ 라는 테마 하에 의상 및 인체, 그리고 액세서리에 ‘No’라는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패스트 패션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였다. 그는 코트나 드레스의 가슴부위에 구조적인 입체형 ‘No’를 삽입하였고, 술기부분을 전통적인 봉제방식이 아닌 스테이플러(stapler)로 처리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봉제로 술기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고정시킬 수 있는 기구인 스테이플러로 주름을 잡거나 박음질함으로써 패스트 패션에 대한 과소비문화 또는 패스트 패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불만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스모키 메이크업 위에 ‘No’라는 문자를 새김으로써 더욱 더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불만을 과장하였다. 빅터 앤 롤프는 초현실주의적인 면이 강한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여기에서 누보 팝아트 형성에 영향을 미친 누보 레알리즘의 실험적 오브제 기법은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가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인 그래피티나 콜라주 기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조들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빅터 앤 롤프 작품에 표현된 그래피티의 사용과 스테이플러의 오브제 이용은 누보 팝적 표현기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빅터 앤 롤프는 누보 팝적인 표현기법인 그래피티, 스테이플러인 현대적 오브제의 사용, 대비되는 색상을 통해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여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충동적 소비성 코드에 접근하였다.

장 샤를르 카스텔 바작은 2004년 S/S 컬렉션에서 모델들에게 초커 형식의 바코드 이미지의 장식을 두르게 함으로써 소비문화를 표현하였다. <그림 53>은 수 쥘

래의 여성 구두 사진은 물론 'MADE IN ITALY'를 통해 명품임을 암시해주는 문구가 프린트된 심플한 원피스로, 여성들의 아름답고 섹시해보이고 싶은 욕망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힐의 구두이미지는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MADE IN ITALY'라는 문구는 마치 홈쇼핑이나 TV 상품광고의 한 장면인 것처럼 광고에 의한 여성들의 충동적 소비성향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도 <그림 53>과 유사한 표현기법으로 프린트된 바코드, 'MADE IN SMILE'이라는 문구 및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상업적인 만화 캐릭터 이미지가 차용된 드레스로, 만화를 애청하는 어린이들의 즐거움조차도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충동적인 소비를 자극하는 현상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3>,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만화캐릭터와 바코드 이미지의 차용, 사실적인 이미지의 프린트 및 그래픽티 기법, 채도 높은 팝 스타일의 색상 사용, 바코드 이미지의 오브제 사용 등의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으로 표현된 바에 의하면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충동적 소비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영리성

장 샤를르 카스텔 바작은 2004 S/S 컬렉션에서 <그림 55>와 같은 심플한 탑 드레스에 환하게 웃는 아기의 사진과 그 위에 'MADE IN LOVE'라는 문구를 프린트하여 부모의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나는 생명을 물질적 상품으로 대변하는 바코드와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조차 하나의 상품처럼 하찮게 여기는 현대인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 의한 지나친 영리 추구로 생명이나 사랑 혹은 도덕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현대의 시대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적인 이미지의 프린트와 그래픽티의 사용, 바코드 이미지의 차용과 오브제의 사용, 팝 스타일의 색상 사용은 누보 팝아트적 표현기법이며, 자본주의의 영리추구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조차 상업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비문화를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을 보면 누보 팝 이미지패션의 충동적 소비성 코드에 접근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8> 충동적 소비성
(Victor&Rolf, 08 F/W)



<그림 49> 충동적 소비성
(Victor&Rolf, 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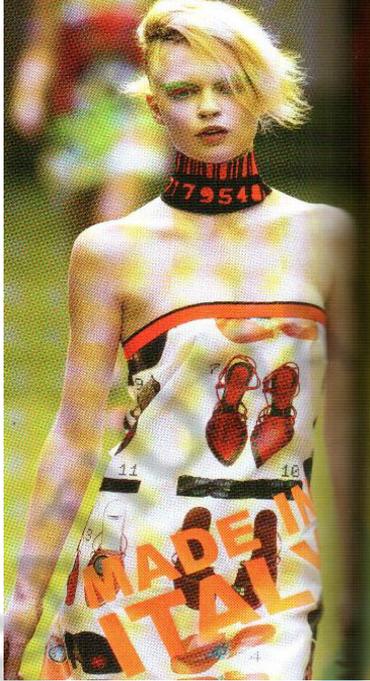
<그림 50> 충동적 소비성
(Victor&Rolf, 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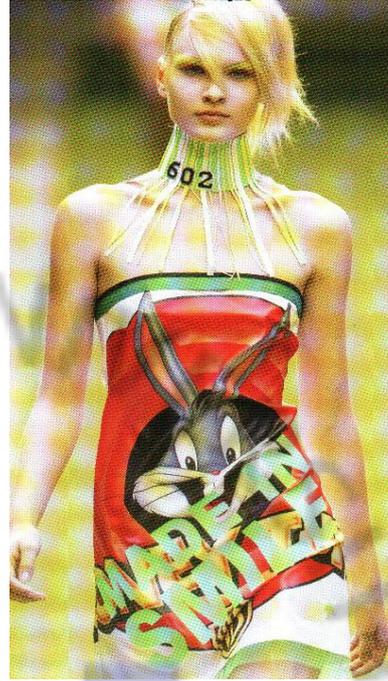
<그림 51> 충동적 소비성
(Victor&Rolf, 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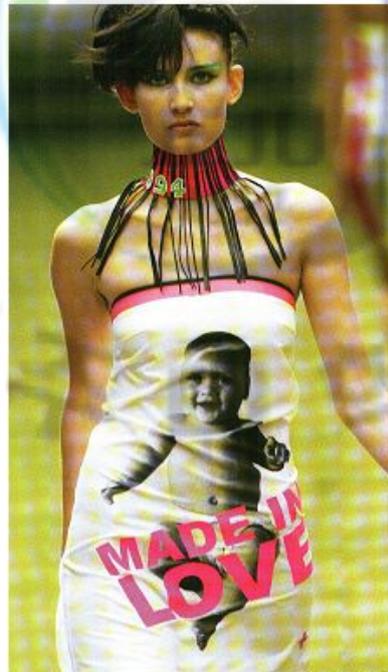
<그림 52> 충동적 소비성
(Victor&Rolf, 08 F/W)



<그림 53> 충동적 소비성
(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그림 54> 충동적 소비성
(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그림 55> 자본주의 영리성
(Jean Charles de Castelbajac, 04 S/S)

결론적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특성은 II장의 누보 팝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분류한 누보 팝아트 주제들 중에서 유추한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 권력의 과시성, 환경파괴의 경고성,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성의 해방성은 색시한 실루엣, 과장된 디테일과 장식, 사실적인 여성 신체 부분 이미지가 부착된 오브제의 부착 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인체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며 현대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소품과 악세서리를 과장되게 활용하였다. 이런 표현방법으로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 저 출산과 피임 등 변화하는 사회문화를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의 해체성은 오브제 및 프린트기법을 이용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의 요소가 혼재하는 패션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을 표현하여 패션에서 소외되어있던 요소들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여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권력의 과시성은 살상무기인 권총 이미지의 프린트 기법, 전쟁과 군인을 연상시키는 오브제의 부착과 비인간적이고 과장된 메이크업 및 타투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전쟁과 그로인한 군인 및 지배자들의 잔인한 폭력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환경파괴의 경고성은 환경문제를 풍자와 비판적인 입장에서 콜라주 작업한 작가의 작품을 드레스 무늬로 활용하여 산업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도시이미지를 프린트하여 패터화 하였으며, 오염된 도시 이미지를 의상에 프린트하거나 입체적인 오브제로 제작하였고 지저분하고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 표현으로 공해문제에 대하여 유머러스한 풍자를 하고 있다. 또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후드 달린 오브제를 이용한 윌피스로 환경오염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표현되었다.

충동적 소비성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 또는 소비문명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사실적 이미지와 광고적인 문구 프린트 및 부정적 의미의 입체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패스트 패션 및 패션을 비롯한 지나친 상품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충동적인 소비문화를 강조하여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영리성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아기 사진과 계몽적인 문구가 프린트된 드레스와 함께 상반되는 이미지인 바코드 오브제의 이용 및 팝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자본주의로 인한 지나친 영리의 추구로 생명이나 사랑 혹은 도덕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현대 소비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은 주로 전위적인 디자이너에 의해 의

상에 오브제와 콜라주, 사실적인 이미지의 프린트, 그래피티, 만화 이미지의 차용, 패러디 기법과 팝 스타일의 색상이 이용되었고 과장된 메이크업과 헤어 및 장신구 등을 이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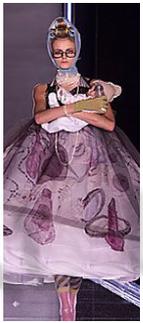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특성은 <표 8, 9>와 같다.



<표 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특성

누보 팝아트 주제	누보 팝아트 주제의 특성 코드화	현대 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성의 해방성	외적표현	여성성이 나타나는 섹시한 실루엣, 과장된 구조 및 실루엣, 여성 신체 이미지 사진의 오브제, 어머니와 직장여성의 상징적 오브제 활용 및 패치 워크와 자수와 채색 등 다양한 기법 혼용
		내적의미	현대여성의 강하고 당당한 모습 표현, 여성의 지위상승, 저 출산과 피임 등 변화하는 사회문화를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다룸
	성의 해체성	외적표현	여성성과 남성성의 요소가 혼재, 상징적 의미의 설치 또는 오브제의 활용
		내적의미	패션에서 소외되어있던 요소들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가 혼재된 양성적 패션 추구
정치와 전쟁, 그로 인한 영웅	권력의 과시성	외적표현	권총 이미지 프린트, 전쟁과 군인을 연상시키는 오브제 부착, 비인간적인 과장된 메이크업 및 신체에 그래피티와 타투 메이크업 이용
		내적의미	전쟁과 그로인한 군인 및 지배자들의 폭력성 비판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파괴의 경고성	외적표현	환경문제를 다룬 작가의 콜라주 작품을 드레스 무늬로 활용, 오염된 도시이미지를 패턴화 및 오브제로 표현, 얼굴과 신체에 지저분한 메이크업 활용
		내적의미	산업사회에 따른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비판 및 풍자, 패션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표현
소비문화와 경제	충동적 소비성	외적표현	스태이플러, 바코드 이미지의 오브제 활용, 사실적 이미지와 광고적인 그래피티 프린트 및 부정적 의미 문자 이용, 팝 스타일의 색상 사용
		내적의미	패스트 패션 및 패션을 비롯한 지나친 상품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충동적인 소비문화 비판
	자본주의 영리성	내적의미	바코드 이미지의 오브제 활용 및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와 그래피티 프린트, 팝 스타일의 색상 사용
		내적의미	자본주의로 인한 지나친 영리의 추구로 생명이나 사랑 혹은 도덕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현대 소비문화 비판

<표 9>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의 예시

		패션예시					
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성의 해방성						
	성의 해체성						
전쟁과 정치, 그로 인한 영웅	권력의 과시성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파괴의 경고성						

소비문화 와 경제	총동적 소비성						
		그림 48	그림 49	그림 50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자본주의 영리성						
		그림 55					

V. 결론

2000년 이후에도 팝아트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식의 감각과 관점에서 팝아트를 재해석한 유럽식 팝아트인 누보 팝아트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한 팝아트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전통성을 강하게 강조한 유럽의 팝은 1960년대 신사실주의와 70 ~ 80년대의 구상회화의 복귀현상으로 신구상회화의 일종인 자유구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는 기성의 오브제들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누보 팝아트는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라는 점, 일상의 소재나 작가의 경험을 상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통속적이고 풍자적이되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미국의 팝아트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누보 팝아트는 아직까지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팝아트가 패션계에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누보 팝아트 역시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누보 팝아트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누보 팝아트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한 결과를 근거로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등장한 누보 팝 이미지의 패션분석을 통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누보 팝이라는 장르를 소개함으로써 좀 더 대중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60년대 팝 패션처럼 패션분야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패션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누보 팝 이미지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누보 팝아트와 미국식 팝아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누보 팝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즉,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소비문화와 경제, 대중문화, 문화 상대주의 등의 주제들로 표현되었다.

유추된 각 주제들을 코드화 한 결과,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의 주제는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으로, 전쟁과 정치 그로 인한 영웅에 관한 주제는 역사의 재현성과 권력의 과시성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의 주제는 환경파괴의 경고성으로, 소비문화와 경제의 주제는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으로, 대중문화 주제는 몰개성성과 무감각성으로, 문화상대주의는 다문화성으로 코드화 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누보 팝아트의 주제들 중에서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주류를 이루

고 있는 주제들은 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서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 전쟁과 정치 그로 인한 영웅에서 권력의 과시성,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에서 환경 파괴의 경고성, 소비문화와 경제에서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 코드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의 해방성은 누보 팝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인체를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도 당당하고 강한 현대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성의 해체성은 여성의 대표적 상징물인 스커트를 남성이 착용함으로써 남녀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자 누보 팝 이미지를 통해 성의 해체가 표현되었으며,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된 양성적인 이미지도 표현되었다. 이는 소외되어있던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권력의 과시성은 살상무기 이미지의 사실적인 프린트, 위협적인 장신구나 오브제의 부착, 과장되고 비인간적인 메이크업과 그래피티 기법 등 누보 팝 이미지가 의상에 이용되어 전쟁으로 인한 군인 등 지배자의 폭력성을 비판하였다.

셋째, 환경파괴의 경고성은 환경문제를 주제로 다룬 누보 팝아트 경향의 작가 작품들이 직물의 패턴이나 무늬로 이용되었고, 그 외에도 광고판, 타이어 자국 등의 이미지가 텍스타일디자인 등에 활용되거나, 쓰레기통 모형의 입체적인 의상, 의도적으로 지저분한 화장 등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하는 등의 누보 팝 이미지를 통해 환경오염과 변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비판적으로 혹은 유머러스하게 고발하였다.

넷째, 충동적 소비성은 'No' 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스테이플러가 이용되어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불만을 아이러니하게 표현되었으며, 소비와 상품의 대표적 이미지라 할 수 있는 바코드 이미지와 광고적인 문구를 모델의 신체와 의상에 표현됨으로써 광고와 그로 인해 현혹되는 소비자들의 심리, 즉 충동적인 소비문화에 관한 누보 팝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본주의 영리성은 환하게 웃는 아기의 사진과 그 위에 'MADE IN LOVE' 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누보 팝 이미지를 통해 자본주의의 지나친 영리 추구로 생명이나 사랑 혹은 도덕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현대 시대상을 풍자하였다.

이와 같이 누보 팝 이미지가 표현된 현대 패션은 누보 팝아트의 표현기법인 인간

적 관점에서의 은근한 비판 및 은유를 통해 현대사회를 풍자적인 주제의식으로 고발된 결과물의 일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을 통해 사회적인 풍자 및 병폐 고발을 한 컬렉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서 규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성의 해방성과 성의 해체성, 권력의 과시성, 환경파괴의 경고성, 충동적 소비성과 자본주의 영리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인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개념 및 이론적 체계 정립을 바탕으로 미국적 팝아트 패션뿐만 아니라 누보 팝 이미지 패션의 새로운 조형적 표현 기법 및 의미 제시, 창조적인 발상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줌으로써 미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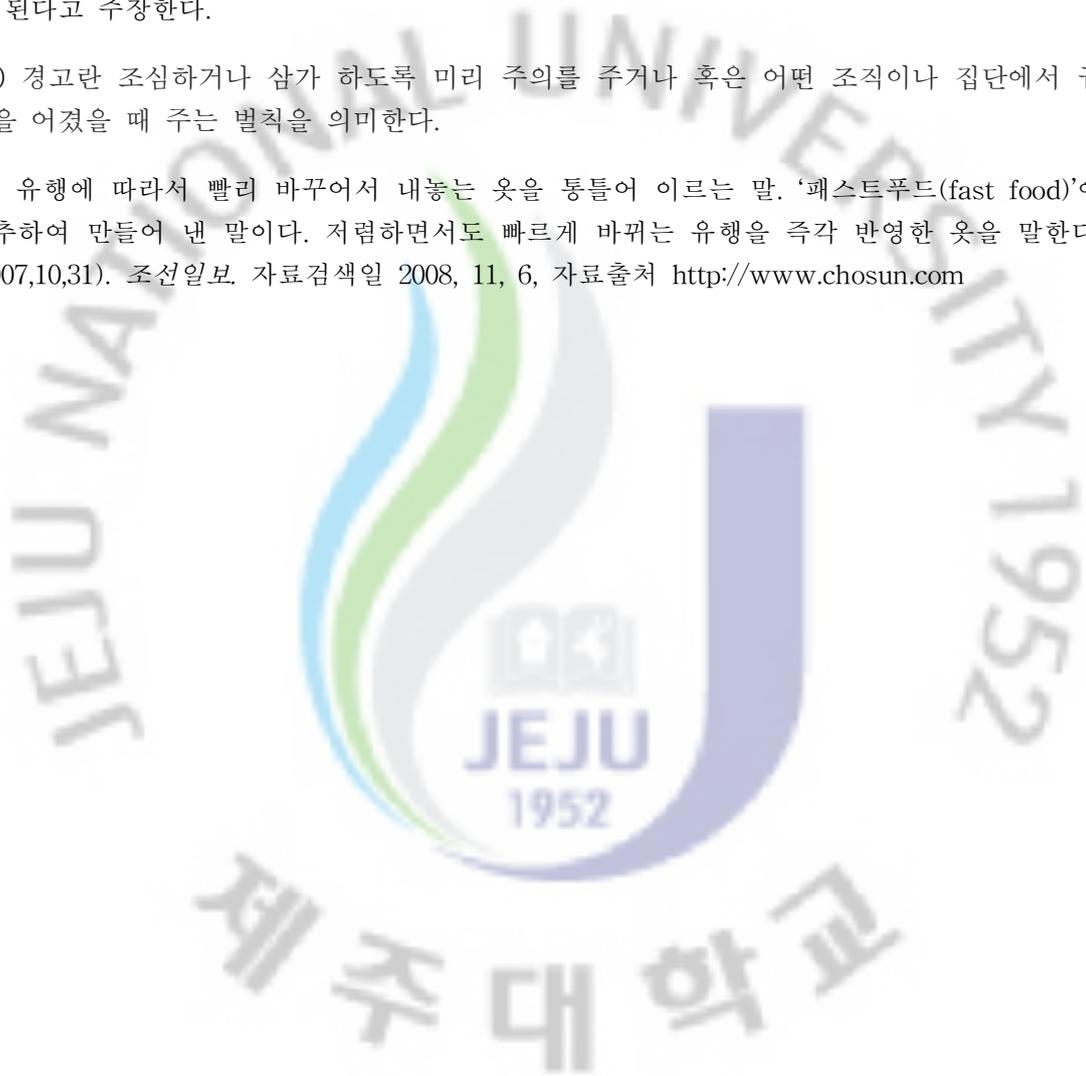
- 1) 간혹 뉴 팝아트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누보 팝아트라 기술하기로 함.
- 2) 네오팝은 전쟁 후 고도의 성장기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세대의 문화집약이며, 팝아트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테크닉으로 표현한 새 장르의 예술이다. 시대적 아이콘의 한 형식으로서의 캐릭터, 아바타와 같은 가상의 인격체, 픽토그램과 같은 이미지가 결합된 기호, 가상세계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흉내 내는 코스프레 놀이, 순수미술과 구별되는 키치,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관심, 유아적이고 동화적인 환상 이미지에 대한 관심 등 하위 문화적 소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미술이다.
- 3) 실제로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주로 제2 차 세계 대전 후, 추상 미술이 세계를 풍미하였을 때 그에 대응하는 의미로 썼다. 네이버 백과사전.
- 4)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일어난 미국의 추상 회화로 넓게는 형태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추구하는 추상 미술의 한 사상(思想)을 이른다. 네이버 국어사전.
- 5) ‘앗상블라주’란 프랑스어로 집합·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내지 3차원적 입체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종이나 베의 조각 등을 화면에 풀로 붙이는 큐비즘의 콜라주에서 비롯되었지만, 콜라주가 평면적인 데 대하여 앳상블라주는 3차원적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 6) 1968년을 기점으로 동서세계의 냉전과 미국의 베트남 침략이나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의해 저항운동이 세계적으로 집중되었던 시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의 교육체계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대학의 학생들이 이후 실업문제,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와 현대 자본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일으킨 운동이다. <http://blog.naver.com/beaumale/80030801211>
- 7) 호세피에르는 Pop ART(1971), 샘 헌트는 American Art of 20th Century (1972)의 저자이고 스웬슨은 팝아트 출현 당시부터 팝을 지지하던 미국의 미술 평론가이다.
- 8) 아르 브뤼(Art Brut)는 프랑스어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1945년 동명의 책을 쓴 장 뒤뷔페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창작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고, 곧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미술제도 바깥에서 창작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848412>
- 9) 타헬레스는 원래 1907년 황실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파사제 형식의 백화점 건물이었는 데, 2차 대전 중 폭격으로 일부가 파괴되고, 1982년부터 철거되던 것을 독일 통일 후인 1990년에 일련의 예술가들이 이 건물의 예술사적 가치와 보존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을 점령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베를린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색다른 볼거리가 되었다. 뤼프스의 작업은 타헬레스 이런 상황과 유사하게 베를린 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단편적인 모습을 모아 보여준다.
- 10) 구체적으로 팝아트적인 기법인 그라피토, 실크스크린, 전위, 레터링, 패치워크 등의 표현기법은 60년대 패션에 영 록, 스페이스 록, 유니섹스 록, 팝과 옴아트 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11) 리처드 프린스는 ‘도용작가’라고 불릴 만큼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그대로 차용해 변형을 통해 페인팅, 사진작업을 해 온 미국 팝아트 예술가로 미술계에서 저작권, 정통성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킨 예술가다.

12) 성의 혁명은 일반적으로 남성 및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 개념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구조된 성에 억압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의 자유는 일관성 있는 페미니즘 정치학 안에 자리 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13) 경고란 조심하거나 삼가 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거나 혹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주는 벌칙을 의미한다.

14) 유행에 따라서 빨리 바꾸어서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 ‘패스트푸드(fast food)’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이다.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즉각 반영한 옷을 말한다. (2007,10,31).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8, 11, 6,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



참고문헌

- 강진이. (1995). 1980년대 이후 유럽 신 구상회화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1-12.
- 강명구. (1995).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 강현정. (2001). 팝아트(Pop Art)의 개념.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26.
- 강정화. (199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2002). 키치가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섭. (1999).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 (1995). 한국 여성 예인의 삶과 예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양여전 교수논문집, 18, 127.
- 김윤주. (1998).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 김주영, 양숙희. (1998).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 한국의류학회지. 22(1). 7.
- 김은하. (2007). 티셔츠에 표현된 팝 아트 디자인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1996). 키치(kitsch) 패션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풍자성, 쾌락성, 향수성, 유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엽. (2008). POP IN POP 展. 11-12. 성남아트센터 전시회 도록.
- 김현희.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팝아트의 키치 특성. 한국 미용학회, 13(3), 863-872.
- 김혜경. (2007).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경기:(주)교문사. 80-81.
- 고현진.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지은. (2004).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키치메이크업의 표현특성.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은경 외. (1999). 패러디가 반영된 현대 패션 디자인의 고찰.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33, 29-33.
- 노버트 린튼. (1980). 20세기 미술. 윤난지 옮김(2003). 서울:예경.
- 노희선. (2004). 피카소 아비뇽 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다음 국어사전.

루시 R.리파트. 팝아트. 전경희 옮김(1990). 서울:미진사. 209-229.

문영대. (2004).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학술저널*, 13(3), 315-337.

박민여. (2000). 앤디워홀(Andy Warhol)의 작품 세계와 패션계에 미친 영향 (I) -195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50(1), 183-196.

박상희. (2006). *일상에서 나타나는 무감각(無感覺)에 관한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박정애. (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주)시공사.

박희숙. (1993). *패션에 나타난 팝(Pop)사조 중 에로티시즘(Eroticism)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주리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랜스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경미. (1998).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한국소비자학회*. 9(1). 17-18.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2008). *POP IN POP 展*. 전시회 팸플렛.

손미희. (1997).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3-269.

손성일. (1999). *Pop Art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선미. (1996). *1990년대에 재 표현된 팝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드워드 루시-스미드. (1988). 19.

위재선. 나수임 (2004). 현대복식에 나타난 팝아트 요소의 코드화-200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12(3), 441-454.

위재선, 나수임. (2004).현대복식에 나타난 팝아트 요소의 코드화-200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12(3), 442.

유럽 '누보팝' 한자리서 본다. (2007,7,22). *한국아이닷컴*. 자료검색일 2008,8,10, 자료출처 www.hankooki.com

유럽 팝 아티스트 5인전. (2008). 갤러리 드리 전시회 도록.

은영자. (2002).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복식문화연구*,11(4), 578-590.

이미량. 김문숙. (1997). 팝 아트적 정신이 20세기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자연과학논 문집*,9(1), 255-265.

이민경. (2003). 현대 키치패션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복식문화연구*,11(4), 578-590.

이영민, 이연희. (2007). 빅터 & 롤프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 구,15(2), 352-367.
- 이영재. (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8(1), 107-121.
- 이인성. (1997). 의상디자인의 형태와 조형예술과의 관계-1960년대의 팝아트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428-1438.
- 이정숙. (1991). *Pop Art* 전후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사상.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주. (1999).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과 이브 클라인(Yves Klein)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8, 255-274.
- 이주현. (1998).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54-55
- 임수정. (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9
- 임은혁. (2005). 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의 영향. *복식*, 55(1), 13-24.
- 장애란. (2006). John Galliano 작품에 표현된 웃음의 미학. *복식*, 56(3), 129-142.
- 정금희. (2001). 현대미술에 있어서 패러디 유형에 따른 작품분석. *예술논집*, 4, 5-33.
- 정경옥. (1997). *팝 아트의 대중적 상표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콜라주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은, 김혜경. (2004). 현대 패션에 Pop Art가 미친 영향 고찰. *디자인 포럼*, 7(5), 69-82.
- 정현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231-252.
-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51-66
- 추미경. (1997). 현대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와 팝아트의 키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4, 91-107.
- 추미경 외. (2007).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 년을 중심으로 . *복식문화연구*, 15(2), 326-338.
- 최승철. (2006). *네오팝의 한국적 변용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현대미술에 나타난 네오팝적 현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2.
- 최현숙. (1996). 패션과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 양상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동덕여성연구*, 1, 269-296.
- 최혜정. (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 천희정. (1995). *팝아트와 1960년대 패션*.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패스트푸드처럼 옷도 '패스트 패션'이 뜬다. (2007,10,31).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8, 11, 6,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
- 홍태희. (2006). *3일만에 읽는 서양미술사*. 서울문화사. 161-165.
- 허윤경. (1999). 현대패션에 표현된 KITSCH에 관한 연구. *비슬 논집*, (10), 277-300.

허현진. (2002). 영국, 미국의 팝 아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7

Opera Gallery Seoul. (2008). *WANTED ! POP ART*. 전시회 도록.

<http://blog.daum.net/okeum/15108986> (2008, 7, 30)

<http://blog.naver.com/beaumale/80030801211> (2008, 7, 30)

<http://blog.naver.com/yeominlaw/110022499159> (2008, 08,5)

<http://blog.naver.com/yh020581/10033871473> (2008, 8, 11)

<http://blog.naver.com/leenam83/60044492342> (2008, 10,1)

<http://blog.naver.com/minjae772/130017336941> (2008, 8, 10)

<http://blog.naver.com/ohyemina/30012227100> (2008, 8, 10)

<http://blog.naver.com/Quixote80/40047839136> (2008, 8,3)

<http://blog.naver.com/sopriceless/60042492115> (2008, 8, 11)



ABSTRACT

The Analysis of Les Nouveaux Pop Image depicted on Contemporary Fashion

Lee Young-He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Pop Art is a trend of art that reflects the society and culture. It is also an important theme in fashion. Since 1960, pop art that emerged in the mid 1950s in Britain, and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became popular in Europe. European Pop Art that has a long history presents an appearance of combination of American Pop Art and Nouveau Realism. In the 70's and 80's, it returned to figurative painting under the influence of Post Modernism. In this sense, European Pop Art could be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Figurative Libre, as a kind of Nouvelles Figuration, and it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society and culture surrounding it. Especially, even after 2000, Pop Art has still been attracting public attention. In France, Les Nouveaux Pop Art reinterpreting Pop art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style emerged.

Les Nouveaux Pop Art is similar to Pop Arts in that it exhibits the ready-made in the representational way. However, it is distinct from Pop Art in several ways. Above all, its representation is descriptive compared to the direct representation of pop arts. Furthermore, unlike pop art that commercially beautifies the artist's personal experience, it tends to be vulgar and satirical, and does not abandon human warmth. Though Les Nouveaux Pop Art differs from American Pop art, fashion influenced by the critical and satirical elements of Les Nouveaux Pop Art is often confused with fashion influenced by American Pop Art. This suggests that academic research and theory is not thoroughgoing enough. Thus my paper will deal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Pop Art and Les Nouveaux Pop Art, and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Les Nouveaux Pop Art and fashion.

This paper redefined the concept of Les Nouveaux Pop Art that is not yet clearly defined by analyzing the images of Nouveaux Pop Art that appears in the fashion, especially collections after 2000. This paper would be helpful to make Les Nouveaux Pop Art familiar to public by introducing it. Moreover, it tries to make the fashion scene active as much as 60's pop fashion was. These efforts would develop future fash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and positive research. I considered the concept of Les Nouveaux Pop Art by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journal that is published in Korean and other countries. That researches and journal largely cover the Pop art, European culture, art. In addition, I also make a positive research by analyzing the images of Nouveaux Pop Art that appears in the fashion, especially collections after 2000. By analyzing the Nouveaux Pop Art and comparing it to 1960's Pop Art, I defined the concept of the Nouveaux Pop Art.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6 main themes of Les Nouveaux Pop Art, I encode them. Then, based on the code of images of Les Nouveaux Pop Art. I analyze and interpreter the images of Les Nouveaux Pop Art after 2000 focusing on the expression technic, external form, and internal meaning.

Summing up, the result of study is like this; the most distinct feature of Les Nouveaux Pop Art from American Pop Art is its humanistic perspective toward modern society. Considering this, Modern fashion expressing the images of Les Nouveaux Pop Art reflec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es Nouveaux Pop Art such as humanistic perspectives, implicit satire, metaphorical criticism toward modern society. Since 2000, a series of collections has tried to criticize and satire the society through the fashions based on Les Nouveaux Pop Art. Especially, their main themes are liberation of sexuality, deconstruction of sexuality, ostentation of one's power, warning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impulsive consumption, and commerciality of capitalism.

This study would not only define the concept of Les Nouveaux Pop Art, but also introduce the new techniques for figurative expression and its meaning and creative inspiration in fashions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Pop Art and Les Nouveaux Pop Art

Key Words: Pop Art, Les Nouveaux Pop Art, liberation of sexuality, deconstruction of sexuality, ostentation of one's power, warning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impulsive consumption, commerciality of capitalism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뿌듯함과 함께 처음 논문을 시작할 때 가졌었던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긴장하던 저의 모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제 옆에서 용기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대하여 미술사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진 교수님과 따뜻함과 배려로 신경써주신 장현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논문을 쓰기까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여러 교수님,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힘들어 할 때마다 용기와 함께 우정을 나눠 준 동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추운 날씨에도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주셨던 어머니, 바쁘셔도 딸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아버지와 항상 웃음과 애교로 힘이 되어주었던 동생들에게도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소중한 오래된 나의 친구들 수연, 지연, 신선, 희정, 남희, 진이, 하나와 그 외에도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과 논문을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
이영희 드림